# 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etoday.co.kr true Friend 한국투자 <sup>증권</sup>

제2561호

3,114.55

동학개미 매수여력 최대 204조 17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김병욱 의원 "공매도, 투자자 보호 측면서 접근해야" 21

**3114.55**(+21.89P) **977.66**(+19.91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100.30(-2.6원) 0.976% (+0,002%P)

# 누적 영업적자만 5조 LG, 휴대폰 결국 접나

권봉석 사장 "최선 선택할 시점 모든 가능성 열고 면밀히 검토" 구성원 고용 원칙적 유지 강조 최근 ODM·외주생산으로 재편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 록하고 있는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사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 냉정한 결 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CEO) 는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본 부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장을 밝혔 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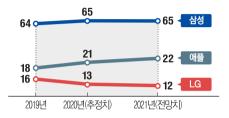
권 사장은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 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MC사업 본부의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 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 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사업 운영 방향이 결정되면 구성원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계 획이다.

LG전자는 MC사업본부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제품 포트 폴리오 개선 등을 통한 자원 운용의 효율 화, 글로벌 생산지 조정, 혁신 제품 출시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 규모에 이른다.

국내 스마트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출처: 카운터포인트리서치



LG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하이 엔드급 스마트폰만 제외하고 제조업자 개 발 생산(ODM) 방식으로 전면 교체,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외주생산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는 핵심 인력은 타 부서로 재배치될 것 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MC사업본부를 폐지하고, 다른 사업본부 내 미니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MC사업본부의 연구·개발 등 핵심 기술을 갖춘 부서를 타 부서로 합쳐 기술력은 유지하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떨쳐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MC사업본부의 전면 매 각이다. LG전자는 최근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펼쳤다 마는 롤 러블폰을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일각 에서는 롤러블폰으로 몸값을 띄우고 사업 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 관계자는 "매각과 사업 축소 등 모 든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G전자가 세계 3 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합작법인 'LG 마그나'를 설립하는 등 사업 포트폴 리오를 완성해 가는 가운데, 모바일 사업 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MC 사업본부가 LG전자의 주가와 실적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코로나19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韓 '백신 기술 보유국' 된다

노바백스, SK에 기술이전 합의 文대통령 "원천기술 확보 큰 의미" 백신 2000만명분 추가 구매

이르면 올봄,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 이언스가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한 일 명 'SK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적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기 술이전을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되면 우리 도 백신 기술 보유국에 오를 수 있다.

▶관련기사 9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스탠리 에르크 노 바백신 대표이사와 영상회의로 기술이전 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이르면 이달 말 체결될 예정이다. 'SK백신' 공급은 5~6월께 시작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술 이전방식을 통한 백 신 생산은 가장 기초적인 위탁생산 방식을 넘어 우리 기업이 백신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끊임없 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해 반드시 국산 백신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추 가 구매에 나선다. 앞서 개별 제약사와 국 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더하면 총 7600만 명분을 구매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만 아 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 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 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 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

을키웠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해 현재 백 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과 관련 "세계 각국 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 부 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에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에 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라며 "다음 달이면 우리도 백신 접종을 시 작하고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자와 개발 자, 백신 생산 노동자들은 코로나 극복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 공장에서 코 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다.

정일환기자 whan@

### "자영업 코로나 손실보상안 상반기 마련"

정세균 총리 "법제 제도화 추진" 與, 대출금리 하향조정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 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시행하 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 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영업 손실보상 제와 관련해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정부가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가능하면 상 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가 개선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주 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논 의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재정당국이 여 전히 부정적 입장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정 총리 발언과 다소 반대되는 견해를 내놨다.

민주당은 자영업 손실 보상에 더해 소상 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도 하향 조정하 고,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 방안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공유제 추 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구체 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위, 산업은행 등관계기관과 협의해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강경화 외교 전격 교체…후임에 정의용

### 문체부 황희·중기부 권칠승 내정 치관급 3명 교체…추가 개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 장관에 정 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 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으론 권칠승 민주당 의원 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자리를 지켜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물러나게 됐 ▶관련기사 8면

정 후보자는 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실행 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정의용

황 후보자는 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4차산

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이해

서울시장에 출마 예정인 박영선 장관의

후임인 권 후보자는 20대·21대 국회의원

으로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관계 소통역량을 발휘해 왔다.



황희



권칠승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중소기업상생협 력 촉진 등에 기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 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

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추가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 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여전히 수장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 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안정적 마무 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 태"라고 밝혔다. 정일환기자 whan@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시대 개막 ▶4.5.6

# 'G마켓·옥션' 새 주인 찾는다… 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

#### 이베이코리아 매각 추진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대규모 지각변동 이 예고된다. 국내 오픈마켓 1·2위 업체인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이베이가 한국 내 온라인장터(이베이코리아) 매각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는 "본사 치원에서 매각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심심찮게 불거져온 매각설이 올해도 등장한 것인데, 업계에서 는 올해는 소문에 그치지 않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아마존에 밀려 성장 정체에 직 면한 이베이 미국 본사가 글로벌 사업 재 편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는 예견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2019년 이베이코리아는 거래액(업계 추 산) 19조 원, 매출액 1조954억 원, 영업이 익 615억 원을 기록했다. 3년 전인 2016년 의 실적(거래액 14조 원, 매출액 8634억 원, 영업이익 670억 원)과 비교하면 거래 액과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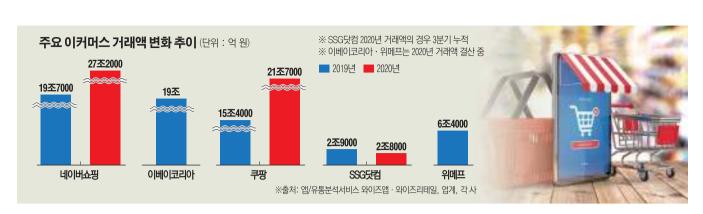
네이버쇼핑 ·쿠팡 등 경쟁사 등장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뒷걸음'

신세계·롯데 등 인수 후보 거론 5兆원대 높은 몸값 매각 변수로

려 뒷걸음질쳐 수익성이 악화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 음에도 이베이코리아의 성장이 정체된 이 유는 강력한 다수의 라이벌이 등장했기 때

우선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쇼핑은 소규모 쇼핑몰을 입점시켜 이들로부터 수 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지마 켓, 옥션과 유사한 플랫폼이다. 다만 이베 이코리아에 비해 판매 수수료 경쟁력이 월 등하다. 네이버쇼핑은 업계 최저 수준의 판매 수수료(매출연동 2%)를 고수한다. 반면 지마켓과 옥션은 카테고리별로 다르 지만 평균 6~8%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받 는다. 오픈마켓을 통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수수료 차이가 크다



보니 요즘엔 지마켓보단 네이버쇼핑을 주 로 찾게 된다"고 말했다.

직매입과 압도적인 물류 역량을 바탕으 로 한 쿠팡의 확장도 이베이코리아의 존재 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 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국 내 만 20세 이상 소비자의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데이터 를 표본 조사한 결과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지난 한 해 동안 21조7485억 원이 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추정치(15조 4000억 원)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시장의 눈은 '이베이코리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 성장

정체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픈 마켓 1.2위 사업자를 보유한 이베이코리 아는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된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베이코 리아가 보유한 점유율을 가져온다면 매우 매력적"이라며 "더욱이 이베이코리아는 오 래된 업력과 그에 따른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진출 사업자에게도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국내 유통 대기업과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SSG닷컴에 투자한 어피너 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사 (PEF)가 인수 후보자로 거론된다. 실제 신세계는 SSG닷컴, 롯데는 롯데ON 등 자체 이커머 스 사업에 힘을 싣고 있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건은 역시 가격이다. 이베이 측에서는 5조 원대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 한 가격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 근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가 매물로 나와 시장에서 2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도 이베이코리아 매각 가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베이 측에서는 원매자에게 최 소 요기요보다는 높은 가격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네이버, 세계 1위 웹소설 '왓패드' 인수… '콘텐츠 골리앗' 우뚝

6600억에 지분 100% 인수… 웹툰 이어 사용자 1.6억명 확보

네이버가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왓 패드'를 인수,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네이버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 패드를 약 6억 달러(약 6597억6000만 원)에 지분 100% 인수한다고 20일 밝혔 다. 네이버는 왓패드 인수로 웹툰과 웹소 설 분야에서 각각 세계 1위 플랫폼을 보 유하게 됐다.

왓패드는 매월 9000만 명 이상의 사용 자가 230억 분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

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애프터' 등 1500여 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 작된 바 있다. 네이버웹툰의 월 사용자 수는 7200만 명이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웹툰과 왓패드를 통해 1억6000만 명(양사월간사용자수단순합산)이상 의 사용자를 가진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 링 플랫폼 사업자가 된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 에 있는 9000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와 500만 명의 창작자가 남긴 10억 편에 달

하는 스토리 콘텐츠로 글로벌 콘텐츠 비 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네이버웹툰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 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가능하다.

네이버웹툰은 2013년 유료 보기, 광 고, IP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PPS (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2014년엔 영어, 중국어 등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소수 마니아 들이 즐기던 웹툰 콘텐츠를 글로벌 산업 으로 끌어올렸다.

왓패드가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사용자를 보유한 만큼 웹툰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웹소설 역시 더 공 고한 창작 생태계를 형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본 콘텐츠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왓패드에서 검증된 웹소설을 웹 툰으로도 제작, 웹툰 콘텐츠도 강화될 전

왓패드 사용자의 80%가 Z세대인 점을 고려, 글로벌 Z세대에 검증된 원천 콘텐 츠를 네이버웹툰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미 '재혼황후', '전지적 독자시점' 등을 통해 웹소설 기반 글로벌

웹툰화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 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양한 글로 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면 서, "왓패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갖고 있는 IP의 다각화 역 량이 강화되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 테인먼트 기업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이미 네이버웹툰을 통 해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글로벌에서 활 동을 시작하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것처럼, 웹소설 작가들의 해외 진출도 더 욱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과 인수 절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3대 포스코 회장을 역임하신 정명식 前 회장께서 2021년 1월 19일 17시 11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장례식을 포스코 회사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2021년 1월 22일(금) 09:00

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02-3410-6929)

지: 남한강공원묘원(여주시)

족: 배우자 정현숙, 사위 김윤권·이성욱, 딸 정희경·정희영, 며느리 박준영

손주 김형석·김수민·정채윤·정혜윤·정성균·이 준·이민지

공동장례위원장 최정우포스코회장

유 상 부 포스코중우회장

卫

황경노, 안병화

장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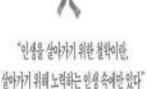
이구택, 정준양, 권오준, 박득표, 조말수, 강창오, 심인보, 이정부, 이명섭, 한경식, 김택중, 장인화, 김학동, 전중선, 오규석, 정 탁, 유병옥, 김광수, 정창화, 이시우, 이주태

코로나19로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平人코

###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点便转字机 相目的 相相 医目示 MSC 10 743 单点 METSAFEO-역사 속 철학자를 문학가의 불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인 자자의 풍부한 열당 경험을 토리로 약에운. 體體聯盟組織領

DESIGNATE BASE STORY

DESCRIPTION OF PERSONS ASSESSED.

# '6년째 적자' 한계상황… 일단 '사업 대폭축소'에 무게

#### 매각 가능성과 절차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전면 재검 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선 단계적으 로 사업을 정리하는 '예견된 절차'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업부 크기를 대폭 줄이고, 제조업자개 발생산(ODM) 비율을 높이는 등 적자 개 선에 힘썼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데 다, 지난해 야심작으로 내놓은 'LG 벨벳' 과 '윙' 등의 제품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사 업 정리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목소리도 나 오다

업계에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언제든 정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는 평가가 지속해서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LG전 자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적자 폭도 꾸준히 늘어 왔다. 2015년 483억 원 적자에서 2016년 1조 원대로 급증했다. 2017년과 2018년 7000억 원대, 2019년엔 1조 원대를 기록 했다. 지난해 적자 폭은 8000억~9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2019년 경기 평택에 있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 했고, ODM 생산을 대폭 확대해 전체 생 작년 'LG 벨벳·윙' 흥행실패 결정타 사업 통폐합 등에도 적자규모 급증

롤러블폰 개발·누적적자 해소 등 산적과제 많아 완전철수 부정론도

산물량의 70% 수준까지 외주생산 비중을 노여다

지난해 12월엔 ODM 사업조직을 강화하고, 선행연구와 선행마케팅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사업 효율화에 주력했다. 당해 2000억 원대에 머무르던 분기별 영업적자가 3분기 1400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사업 회복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피처폰 시절의 아성을 되찾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 가 예년보다 쪼그라든 데다, ODM을 통해 역점을 둔 중저가 시장에선 화웨이, 샤오 미 등 중국 업체 공세를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내놓은 'LG 벨벳'과 'LG 윙'이 시장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며 저조한 판매량에 그쳤다. 특히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를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LG 윙'의 실패는 뼈아픈 사례로 꼽힌다. 발매 이후 현재까지 LG 윙 판매량은 10만 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LG전자 MC부문 실적 추이 (단위: 억원) 11조 11조 7097 6663 7조 9800 5조 5조 9667 226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추정치) -483 -7172 -7901 -1조2591 -1조98 -8320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택지인 '부서 대 폭축소 및 ODM 위주의 최소한도 사업 운 영'과 '사업부 통매각' 방식 중에선 사업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이

최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서 예고한 신제품 롤러블(말리는) 스마트폰 'LG 롤러블'이 개발 단계인 데다, 적자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현 상황에선 원하는 만큼의 몸값을 매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기술이 주력 사업인 가전, TV 사업 내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IoT), 홈 엔터테인먼트 기술과도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직장인용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 인드'에는 LG전자가 현재 MC사업본부 직원 중 '60% 타 사업부 이동, 30% 잔류, 10% 희망퇴직'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 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엔 LG전자 MC사업본부 근무자라고 밝힌 이 가 "최근 권고사직 및 타 사업부 이동을 진 행 중"이라며 노무 관련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LG전자 MC사업본부에는 4000명 기량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데, 사업 축소 방안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2000 명이 넘는 인원이 타 사업부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 LG폰은 왜 시장서 외면받았나

# 흐름 못 좇던 '폼팩터' 결국 도태 구광모 회장 '디지털 전환' 박차

LG전자 모바일은 스마트폰이 탄생하기 이전 '초콜릿'폰 등의 히트로 'LG 사이 언' 브랜드의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입지가 축소됐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후발주자로서 추격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놓친 가격 경쟁력, 혁신적이었지만 주류에서 벗어난 스마트폰 디자인 등이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애플이 2007년 첫 번째 아이폰을 내놓은 후 후속 모델을 선보인 2009년까지도 LG전자는 주력 제품으로 피처폰인 뉴초 콜릿폰, 프라다폰2 등에 집중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의 더욱 공고해지는 충성 고객 확보 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 속에 LG전자의 입지는 좁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화 웨이, 샤오미, 비보 등 후발 업체들이 값이 싸면서도 기능을 확대한 스마트폰을 내놓으 면서 빠르게 신흥국 시장을 잠식해 갔다.

LG전자가 돌파구로 택한 것은 폼팩터 변화였다. 폴더블폰이 시장에서 출시되기 시작할 때 듀얼 스크린 액세서리를 내놓으 면서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듀얼 스 크린과 함께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V50 씽큐'는 119만9000원이라는 높은 출고가에 외면받았다. 애플과 삼성에 비해 차별화된 소구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 았다.

지난해 아심작으로 내놓은 'LG 벨벳'과 '윙'도 참패를 기록했다.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 등을 앞세우며, 출고가를 이전보다 낮춘 89만 원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벨벳을 내놨지만,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를 통



LG전자 스마트폰 전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LG 윙의 모습 . LG전자 가상전시관 캡처

해 야심차게 내놓은 '윙'도 뼈아픈 사례로 꼽힌다. 2개의 디스플레이로 활용성을 극 대화했지만, 이에 걸맞은 애플리케이션이 충분치 않았다. 또 폴더블폰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주류 폼팩터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매 이후 현재까지 LG 윙 판매량은 10만 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폰과 폴더 블폰을 내놓고 나서야 시장 진입을 하거나 준비를 할 정도로 신중하다. 시장이 완전 히 열리면 들어가 수익성을 올린다는 전 략"이라면서 "삼성은 새로운 기술과 폼팩 터를 다양하게 실험하며 시장 선도 입지를 구축했고, 중국 브랜드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갔지만, LG전자는 뚜 렷한 모바일 사업의 차별화 전략과 지향점 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광모 LG 회장은 LG전자 스마트 폰 사업을 조정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 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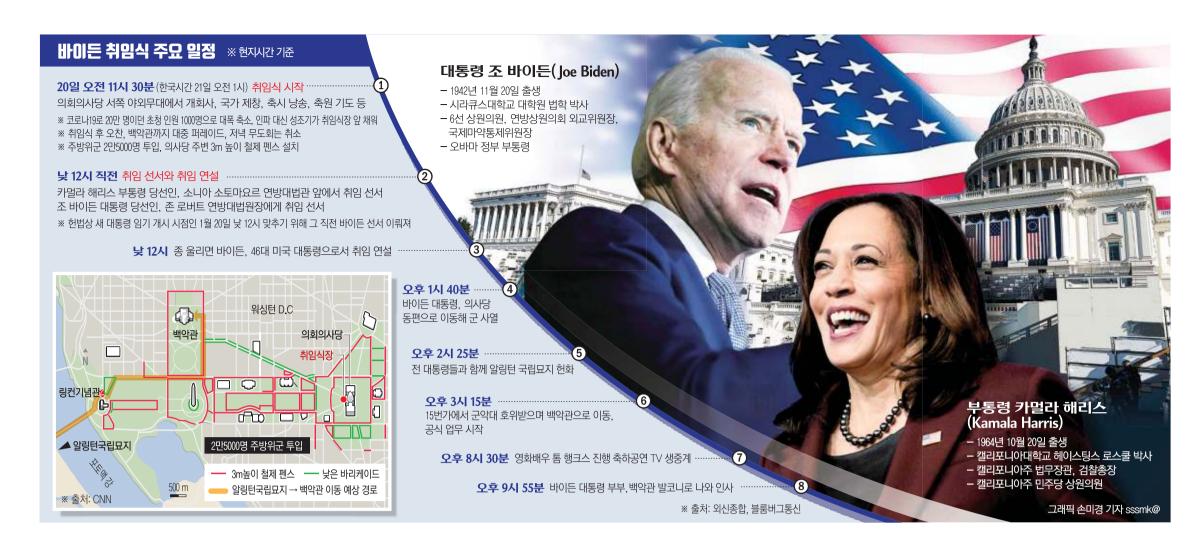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막오른 '바이드노믹스'… 국제 무역질서 재건 나선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 면서 국제 무역질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 방 외교를 지향하고 고립된 무역 정책을 펼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외교로 복귀 해 주변국과의 공존을 모색, 글로벌 무역 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대규 모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다자주의 부활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외교·안보 라인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 회견에서 그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을 넘어 전 세계 글로벌 리더 역할을 재확 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미 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는 내 신념을 확인해줄 것"이라며 동맹국과 의 관계 강화를 거론했다. 트럼프 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세계무역기구 (WTO) 정상화도 약속했다. 세계보건기 구(WHO)에도 재가입할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온다.

무역 관세 관련해서도 당장은 철회할 가

WTO 정상화·WHO 재가입 등 '다자외교 복귀' 기대감 무역관세 조정 통해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 나설 가능성 1.9조 달러 부양책 약속… 또다른 '슈퍼 부양책' 전망도

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동맹국들과 긴 밀히 협력해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연합(EU)은 이미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 고 '세계적 변화를 위한 EU-미국의 새로 운 어젠다'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하며 관 계 개선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 외교에 따른 유럽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반독점 행위를 금하고 외국 기업 투자 심 사 시 양국이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 았다.

보호무역주의를 철저하게 펼쳤던 트럼 프가 퇴장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무역에 긍정적 흐름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 오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3600억 달러(약 396조 원) 규모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관세 폭탄에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트럼프 대통 령 취임 이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입지만 좁아 졌다는 평을 낳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은 트럼 프와 달리 다른 나라를 상업적 전리품을 위해 경쟁하는 적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 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세 폭탄에 시달리는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바 이든 대통령에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 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 지른 동맹 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 에 앞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국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지난해 선거에서 '트리플 블루(대통령 과 상·하원 모두 민주당 승리)'를 실현한 만큼취임전 발표했던 1조9000억 달러 규 모의 부양책에 이어 또 다른 슈퍼 부양책 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보급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회복의 주된 요인이다. 다만 최근 미 국 내 접종 속도가 애초 트럼프 전 정부가 밝힌 것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 직은 바이든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뉴욕타임스(NYT)는 "새 대통령은 과 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반대한 트럼프의 많은 정책을 다시 뒤집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정권은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취임 일성은

# 통합"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열과 증오로 가득찬 미국 사회 의 구원투수가 돼 마운드에 올랐 다. 그는 취임식 전 델라웨어주 고별인사에서 밝혔듯 '어두운 겨 울'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미 국내혼돈·불신·대립을치유하고 다른 나라와의 틀어진 관계를 복 원, 희망을 써 내려가야 하는 막 중한 책무를 안았다.

바이든은 20일(현지시간)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와 6일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후폭풍에 '요새'로 변해버린 워싱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트럼프 흔적 지우기' 강공

턴D.C.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46대 대통령으로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일성은 '통합'이 었다. 그만큼 트럼프 전 정부가 남긴 분열과 대립을 뒤로하고 새 페이지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 이 담겼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 프 흔적 지우기에 강공 드라이브 를 걸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 가입 행정명령 서명, 이민개혁법 안 발표,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철회 등을 쏟아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세웠던 일방주의적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다자 주의에 입각한 국제질서로의 복 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바이든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 이 돌아왔다'를 대내외에 입증하 면서 글로벌 외교와 경제 질서 정 상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바이드노믹스' 韓경제에 미칠 영향은

###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청신호… 태양광·배터리도 수혜 예상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국 의 무역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임 기간에 경직됐던 통상환경이 완화하며 한국의 무역과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지속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상 환경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직전 보고서를 통 해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바이든이 세계무역기구(WTO) 중 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국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전 제로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통상 환경이 개선될 여지 가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약

'자국 우선주의' 기조 유지… 지나친 낙관론 경계 지적 환경·노동규제 강화 가능성, 또다른 무역장벽 '불안감'

208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 는 점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 는 배경이다.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는바이 든 정권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되면 소비와 투자가 확 대되며 한국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 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 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 많아 미국 경기 회 복 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바이든 정권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정책은 국내 배터리, 태양전 지, 태양광 모듈, 전기차 등 관련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약 2200조 원)를 투 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 4년 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 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 시장이 확대되면 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 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 산업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 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 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 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권이 큰 틀에서 자국 우 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나친 낙관 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는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

맹인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첫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을 요구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2016년 '사 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 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 상조치를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미 • 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연계 공급망을 재 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 다"고 제언했다.

환경, 노동 규제 강화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며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에 '탄소 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이는 석유화학, 첨단기술 산업 등 환경문제에 민감한 산업 분야에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 '가치동맹 중시'… 문재인 정부에 또다른 압박될 수도

### 한미·북미 관계 방향은

방위비 부담 벗어날 수 있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 커질 듯 외교·안보 라인 '북한통' 포진 대북문제 해결 의지 보여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갈림길에 섰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자리의 주인이 바뀌면서 한국 의 외교도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 그 변 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관계를 살펴보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은 한미동맹 강화와 과도한 주 한 미군 분담금 강요 완화 측면이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 의 국가들의 연대로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 속에서 한국은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강 한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최악 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 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북 외교에서 바 이든 정권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베테랑 들을 다수 기용, 비핵화 문제 등에 강력한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거래'의 관점으로보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한미 분담금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에 있어 전정권에 비해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전 발표한 정강 정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반도 내 북핵 위기 고조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 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며 "우리는 절대로 동맹국들에 '보호비(protection rackets)'를 달라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동 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향후 인도·태평양 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의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동맹 중시'는 한국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주창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한 국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역내 전 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취임 전부터한일 갈등 해소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선유세에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한일 관계의 '불화(odd)'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국무장관으로는 과거 버락 오바마정권에서 한미일 삼자 관계 강화에 주도적역할을 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발탁했다.

북한은 '강적'을 만나게 됐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외교·안보 라인에 대북 정책에 익숙한 '한반도 전문가' 들을 대거 기용, 대북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차기 행정부의 국무부 주요 인선 면면을 보면 '북한통' 들이 포진해 있다. 블링컨은 오바마 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전략적인내'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다. 국무부 이인자인 부장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도 대북조정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다. 셔먼은 빌 클린턴행정부 시절 평양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2기 때 이란 핵합의의 산파 역할을 했던 '핵협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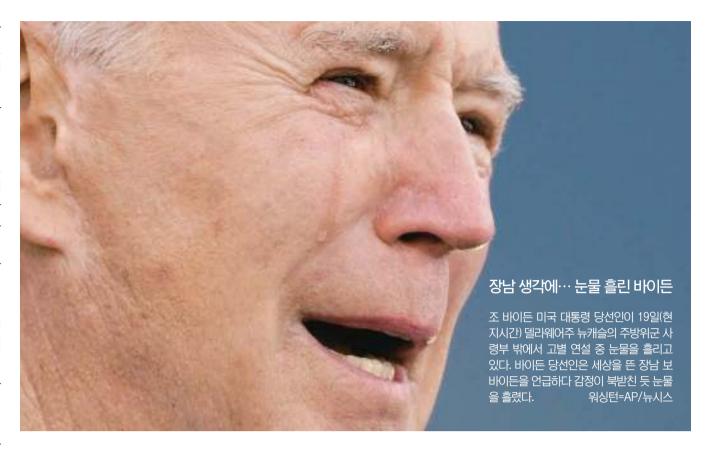
바이든이 쉽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할 것 같지는 않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 를 추구하는 데다가,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무기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극적인 관계 변화를 보 일 가능성이 작다.

바이든 정부에서 절차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때와 같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등 파격적인 이벤트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본인도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바이든이 북한의 협상 전략과 전술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권 초기 북한의 도발 등 대미 압박 외교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트럼 프 임기 초인 2017년 '분노와 화염'의 시기처럼 양측이 극한 충돌로 치달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이다.

바이든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과 블링컨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상당히 열린 모습을 보인다는 점 또한 북미 외교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변효선 기자 hsbyun@



### 변수 늘어난 美・中 전쟁… 韓 '줄타기 외교' 계속

바이든, 인권 등 범위 넓힐 듯 공산당 100주년 中 반격 준비 '전략적 요충지' 위상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가고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과 벌일 패권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쏠렸다.

지난 4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신 (新) 냉전'에 버금가는 갈등에 놓이게 됐다. 수십 년간 서로 대립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공생해 오던 양국이 철저한 대척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2개국 (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도 계 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못지않은 강경 기조 =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의 그간 언행을 보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행정부 차원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트럼프 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중국을거칠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메릴랜 드주 앤드류스 공군 기지 도착 후 당시 부통 령이었던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함께 활주로 위의 레드 카펫을 걷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했다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한 미·중 갈등이 바이든 시대 환경·노동·인권문 제로 더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7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 위상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블룸 버그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정 부는 전임자가 훼손한 중국과의 의사소 통 채널을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 1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재앙적 상황 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에 낀 한국, 줄타기 외교 = 정치 ·외교적으로 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때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이정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한국에 자신의 반대편에 서지 말 것을요구하는 일이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조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균형점을 찾는 게 더이익"이라고 조언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동 맹국들을 끌어모아 중국 견제 전선을 구축해 나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의 위 상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외 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트럼프는 동맹 국들과의 협력을 무시한 채 중국에 대 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바이 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 및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 반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文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새판 짜나

#### 韓 외교·안보 전략 변곡점

바이든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싱가포르 합의' 계승 가능성 낮아 전문가들 "성과 욕심 내려놔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문재 인〈사진〉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외교·안 보 전략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바이든 측이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바이 든 정부는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겠다는입장이 어서 '중립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 성도 커졌다.

우선 북한 문제의 경우 문 대통령은 미 국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으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승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대화는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을이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일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장관에 전격 기용해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

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 장관 후보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지만 새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은 기존의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 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 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정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것은 역대 행정부를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고 나아지지 않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 어려운 문 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 전반 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선언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 북 접근법 자체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 는 의미인 셈이다.

블링컨 지명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장 관 후보자가 오히려 '나빠진 문제'의 장본 인일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기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바이든 정부 측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함께 단행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미국통'으로 불리는 김형진 대사가 2차장으로 등판하고 김현종 차장이 실무자에서 자문역으로 역할을 바꿔 조언자로 나선다는 점이 주목된다. 어떤 식으로든 '시즌2'로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성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행정부는 코로나를 막는 게 최우선순위이 고, 경제 회복하는 것이 그다음, 완전히 분 열돼 있는 사회를 수습하는 게 현안이다. 외교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대 통령이)바뀌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 들이고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8차 당대회 결정 사안의 핵심은 자력갱생"이라며 "자력갱생하자 해놓고 남북 교류협력 지원을 받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북 간에는 느슨한 조건하의 대화와 교류, 북미 간에는 맞대응 전략을 할 것이며 2018년 같은 갑작스러운 톱다운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

박준상 기자 jooooon@

정일환기자 whan@

# 집콕족 덕 본 넷플릭스 유료가입자 2억명 돌파

1억명 도달 3년 만에 2배 늘어 매출 전년비 22%↑ 사상 최대 주가, 1년새 48% 폭등 승승장구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 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 최고 승자로 자리매김했다. 넷플 릭스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돌파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글로벌 가입자 수는 2억370만 명으로 집 계됐다. 가입자 수는 2017년 3분기에 1억 명을 넘은 후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가입한 사람은 3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여서 가입자 동향이 회사의 성장 능력을 평가하 는 지표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가입자 수가 6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가 아닌 해외 가입 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 기 북미 지역 신규 가입자 수는 86만 명에 그쳤지만, 아시아에서는 200만 명, 라틴아 메리카에서는 120만 명이 추가됐다. 유럽 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50만 명이 유입됐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66억4444만 달러(약 7조 3206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레 피니티브 집계 전문가 전망치는 66억 2600만 달러였다. 다만 순이익은 5억 4215만 달러(주당 1.19달러)로 전년 동기 의 5억8700만 달러(주당 1.30달러)에서 8% 줄었다. 팩트셋 집계 전문가 전망치는 주당 1.36달러 순익이었다.

투자자들은 넷플릭스가 고성장을 지속 한 것에 환호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 간 외 거래에서 12% 넘게 폭등했다. 넷플 릭스의 주가는 지난 1년간 48% 가까이 올 랐다.

### 넷플릭스의 분기별 총 가입자 수 추이 (단위: 100만 명) ■ 아시아 · 태평양 ■ 중남미 ■ 유럽・중동・아프리카 ■ 미국・캐나다 2억370만명 3분기 1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자체 제작 드라마 '퀸스 갬빗'과 '브리저 튼' 등이 높은 인기를 끌고 코로나19가 재 확산한 것이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에 영향 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넷플릭 스의 자체 콘텐츠는 올해에도 활발하게 출 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500개 이 상의 콘텐츠가 준비돼있으며 올해 70여 편 의 영화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더는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 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투자자들의 이목 을 집중시켰다. 넷플릭스는 "일상적인 업 무를 위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 을 것"이라며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은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 고 자신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콘텐츠 제작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 금을 조달했다. 2019년에는 잉여현금흐름 이 마이너스(-) 33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 였다. 부채 규모는 100억~150억 달러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콘텐츠 예산을 유지하 면서도 부채를 갚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력한 경쟁자들은 넷플릭스에 위협적 인 존재다. 월트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 11월 첫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 수 9000만 명을 달성했다. 최혜림 기자 rog@

# 바이든 밀고, 옐런 끄니… 美증시 날았다

경기부양책 기대감··· S&P. 작년 11월 대선 이후 12.76% 상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껏 달아올 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한 대대적 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 는 일제히 올랐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 일 대비 116.26포인트(0.38%) 상승한 3만930.52에 마감했다. S&P500지수 는 30.66포인트(0.81%) 오른 3798.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는 198.68포인트(1.53%) 상승한 1만 3197.18에 각각 장을 마쳤다.

미국 금융시장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바이든이 대선 이후 취임 전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2번째로 가장 높게 주 가를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팩트셋 분석 결과 작년 11월 3일 대선 이후 취 임 직전인 이날까지 S&P500은 12.76% 상승했다. 이는 1928년 허버 트 후버(공화당)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당시 후버 대 통령 당선일로부터 임기 시작일까지 S

### 뉴욕증시 S&P500지수 추이 ※ 현지시간 종가 기준



&P500은 13.3% 뛰었다. 바이든 행정 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조 기 통제를 강조한 것이 경기회복 속도 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바 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하루 100 만 명씩 총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 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선거 불복 과 의사당 폭동으로 어수선했던 정국 분위기가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가라앉 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권이 예고한 슈퍼 부양책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 일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을 공개했다. 백신이 광범 위하게 접종될 때까지 추가 재정 지원 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것을 목 표로 현금 지급, 실업 수당, 최저임금, 주·지방 정부 보조금 등을 인상하는 내 용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과 경기침체라는 '이 중고'에 직면해 여유가 없다"며 경기부 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월 추가 부 양책도 예고했다. 그는 "이번 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내달 상·하원 합 동 회의에서 광범위한 제2차 경제 회복 계획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재닛 옐런이 대규모 부양책을 강조한 것도 시장에 낙관론을 더했다. 이날 상 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연 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지원을 시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코로나 사망자 40만 명…추모의 붉은 빛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는 붉은색 조명이 밝혀져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 4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지 1년 만이며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해 2월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날 미국 전역의 명소에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명이 켜졌다.

### MS, GM과 자율주행차 개발 맞손

'크루즈' 20억 달러 편딩 참여… 클라우드 서비스 탑재

)의 자율주행 사업에 투자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는 MS 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 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2050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다. 이번 자금 조달로 2019년 190억 달러 수준이던 크루즈 가치는 300억 달러로 뛰 었다.

크루즈 대변인은 "GM은 자금조달을 목적으 로 자사의 투자 유치를 늘리고 있으며 여전히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투 자에는 현재 주주로 활동 중인 혼다자동차 외 에도 익명을 요구한 여러 기관 투자자가 포함 됐다"고 말했다.

GM은 2016년 초 크루즈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크루즈는 지난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를 실험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로봇 택시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일본 소프트뱅 크와 혼다자동차 등으로부터 약 70억 달러를 조달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자금 조달과는 별개 로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의 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너럴모터스(GM 술을 바탕으로 한 조만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크루즈는 2019년 말까 지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은 무산됐고 이렇다 할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이번에 MS를 만나게 됐 다.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자율주행차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MS 역시 이번 투자를 통해 막대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 상한다.

> MS의 참여에 대해 댄 암만 크루즈 최고경영 자(CEO)는 "크루즈의 기술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역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는 것을 돕고 싶 다"며 의욕을 보였다.

> 투자 소식에 이날 GM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72% 폭등한 54.84달러로 사상 최고치 를 경신했다. MS 역시 1.78% 상승한 216.44 달러를 기록했다.

> WSJ는 "MS는 최근 몇 년 동안 고객사에 서 버와 소프트웨어를 대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 자는 클라우드 분야의 선두주자인 아마존과의 경쟁 속에 신시장을 공략하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실종·구금설' 마윈, 3개월만에 공개석상 등장

### 자선행사서 화상 연설… 알리바바 주가 4% 급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 바그룹홀딩의 마윈〈사진〉 설립자가 3 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였 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으로 부터 미운털이 박힌 이후 공개 일정이 없어 실종설과 구금설 등이 제기됐 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윈 은 이날 중국 농촌 교사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자선 행사는 영어 교사 출신인 마윈이 2015년 이후 매년 주최해왔던 것으 로, 농촌 지역의 우수 교사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한다.

마윈의 연설은 중국 농촌 교사들의 헌신과 교육에 대한 감사 인사로 채워 졌다. 그는 "매년 있는 행사는 우리가 합의한 것"이라며 "올해는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 에 만날 수 없지만, 우리의 합의는 변

함이 없고 선생님들께 드리는 상도 빠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난 6개월간 재단 동료들과 자원봉사자 들은 전국의 시골 지역을 방문했다"며 "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마윈은 또 "이 기간에 나와 동료들은 공부하고 생각하며 교육과 복지에 전 념하겠다는 의지가 커졌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은 완전한 빈곤 완화를 달성하고 농촌 활성화 전 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는 이 영상이 마윈 설립자 가 찍은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의 등장 이후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4% 이상 급등했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말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중국 정부 의 금융규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



했다가 당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 다. 연설 일주일 뒤 중국 당국은 알리 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기 업공개(IPO)를 중단시켰고, 알리바 바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그가 제작한 TV 쇼 '아프리카 기업 영웅' 마지막 에피 소드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실종설과 구금설, 출국금지설 등이 제기됐다. 당시 마윈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결 선 진출자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지만,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 는 이유로 출연하지 않아 무성한 소문 을 낳았다. 최혜림 기자 rog@



### 썸데이 썸씽 스페셜 이벤트!

### 썸데이 외화 적금 가입하고 스페셜한 선물 받자!

대 상 국민인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기 간 2020. 11. 23[월] ~ 2021. 01. 29[금]

이벤트 기간 동안 썸데이 외화 적금 가입하고 이벤트 참여한 3,000명에게 선착순 스페셜 기프트 제공

### 혜택 1

**1~2,021번째 고객**에게 야놀자 1만원 쿠폰 or 제주항공 1만 포인트 제공[택 1]





### 혜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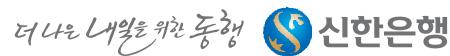
2,022~3,000번째 고객에게 바나나우유 기프티콘 제공



### [신규가입 방법]



존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1-1004 - 1호(2021. 01. 31~2021.12. 31)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유의사항 ※ 경품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계좌 신규는 생애최초 신규 계좌에 한합니다(단, '21. 01. 31까지 계좌 유지 필수) ※ 야놀자와 제주항공 포인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번호가 쓸 쿠폰함으로 입고됩니다. ※ 바나나우유 기프티콘은 '21. 2월 중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핸드폰 번호로 일괄 발송되오니, 등록된 핸드폰 번호 확인 및 수정 부탁드립니다. ※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고, 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으며 경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투데이 정 치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서울시장 보궐선거 '5强 구도'… 표심경쟁 본격화

박영선 사실상 출마… 與 2파전 박, 민생 위기 회복 중점 둘듯 야권 빅3 "내가 적임자" 기싸움 안철수 "野 후보 단일화 경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가 20일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권 유력주자는 박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인으로 압축됐다.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10명 넘게 출마선언을 한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처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의 윤곽이 속속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 야 유력 후보들은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 전 중기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여권에 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박 장관이 가세하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사의 표명 후 대전시 정부대전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우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출마 선언을 먼저 한 우 의원은 그 동안 꾸준히 '정책' 위주의 공약을 준비해 왔다.부동산 대책 외에 코로나19 관련해 서도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 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오신환 서울시장 후보, 이종구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전 의원, 박춘희 서울시장 후보, 주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조은희 서울시장 후보, 김근식 서울시장 후보.

는 2030년을 바라보고 친환경 차·보일러 교체를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온 박 장관의 경우 민생 위기 회복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박 장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는 최근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 장의 출마로 인해 안 대표와 함께 '빅3 체 제'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각 '맞춤형 민생 지원책', '5년 시정 경험', '부동산 공급대 책' 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공약 대결에 돌입했다.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출마 선언을 한 나전 의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나전 의원은 △민생긴급구조 기금 6조 원 마련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부담 완화 및 배달갑질 근절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과거의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며 "저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 선과 5년간의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 뒤 단일화 논의 를 해도 늦지 않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시점 을 3월 초로 제시한 상태다.

하유미 기자 jscs508@·김윤호 기자 uknow@

### 측근 전진배치 내각 재정비… 산적한 과제 효율적 대처

단 보상 보험 도입 등을 공언했다. 17일에

### 문 대통령, 3개 부처 개각

바이든 정부 맞춰 외교 재구축 중기 '실세' …문체 전문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3개 부처 장관 교체는 국면 전환이나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보다는 당면한 현안을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각 재정비의 성격 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지금까지 외교부를 이끌어온 강경화 장관 을 퇴진시키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기안보 실장을 내정한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춘 포석으로 해석된다. 외교·안 보진용을 재정비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 이된다.

정의용 후보자는 문정부 초기부터 작년 7월까지 외교 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 장을 지냈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각종 협의에 관여해 왔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해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켰다. 또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한 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정 후보자 기용은 풍부

한 경험을 가진 그에게 외교·안보 분야를 맡겨 한미 관계를 재구축하고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교체는 박영선 장관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데 따른 것이다. 후임자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박 장관에 이어 '실세 장관'이 중기벤처부를 이끌도록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 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것은 전문성을 배제한 예상 밖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일환기자 whan@

### 정 총리 "방역 우선" 비판 가세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동에 이낙연 '견제구'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권주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날 선 비판 을 한 것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 는 분석이다.

먼저 이 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시동을 걸자 이 대표가 공개 비판하면서 대립 각을 세웠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 지사는 20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지사 측은 "당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방역에 무리

가 안 되는 선에서 지방자치 본질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 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도 전날 MBC 인터뷰에서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 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del>꽃들</del> 기자 flowerslee@

# 訃 告

# 三養그룹 金相廈 名譽會長께서 2021년 1월 20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화 및 부의도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망인 朴商禮 아들 沅 손자 柱衡 柱成

内上리裵珠娟외손자宋根和崔允娥외손녀宋智瑛

·빈 소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 ·발 인 : 2021년 1월 22일 오전 8시 20분

· 장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선영 · 연 락 처 : 삼양홀딩스 02-740-7036

빈소 02-3010-2000

# '백신 주권' 확보… 위탁생산국서 한 단계 진전

노바백스, 항원 개발 기술이전 계약 이달 진행할 듯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능력 최대 5억 도즈로 확대

다국적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전 망이다. 국내 백신 기업 SK바이오사이언 스가 노바백스의 기술을 넘겨받아 코로나 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일 해당 계약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계약 으로 생산된 백신이 이르면 5월에도 공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노바백스, SK바이오 사이언스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노바백스 는SK바이오사이언스에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개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기술을 토 대로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을 생산, 국내에 공급하게 된다. 노바백스 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일정 금액의 기술료를 받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노바백스 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개발생산 (CDMO) 개발을 체결했다. 기술이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협력이다. 단순 히 고객사가 발주하는 물량을 생산 공급하 는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활용해 주도 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백신은 SK바이오사이 언스 브랜드로 국내에 공급된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면역증강제와 섞어 인체에 투여해서 면역반 응을 유도하는 합성항원 백신이다. 백신 개 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기다리는 가운데, 노바백스의 기술이전이 성사되면 국내 백신 물량은 빠 르고안정적으로확보가능할 것으로기대 된다. 정부는 2분기 중 노바백스의 백신을 국내에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따라서 본 계약까지 신속하게 진행돼 야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1000만 명분)도 위탁생산을 통해 책임진다. 회사는 아스트 라제네카, 노바백스와 잇따른 위탁생산 계 약 후 생산 능력을 최대 5억 도즈까지 끌어

SK바이오사이언스관계자는 "이번합의 는 백신 제조 기술력은 물론 생산 및 상업 화 능력까지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 면 본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착수했다. 65세 초과 고령자 25%를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9000명을 모집했다. 아직 허가를 받은 나 라는 없으며, 미국에 1억 도즈, 영국과 6000만 도즈 분량의 접종 물량을 제공하 기로 계약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20일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 달걀 관세 한시적 면제 책본부 회의'에서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 달걀 판매대에서 한 시민을 달걀을 고르고 있다.

### "작년 신설·강화 규제 1510건··· 증가폭 10년 새 최다"

### 전경련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 포괄적 평가 도입해야"

작년 신설 · 강화된 규제 수의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 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 부 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보다 55%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 규제는 1009건으로 85.8% 늘었 고, 강화 규제는 501건으로 16.2% 증가했 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1598건이었던 2012 년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가 가장 컸다. 그 뒤로 2016년 45.9%, 2012년이 28% 등 순이다.

1510건의 신설・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 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 규제개혁위원 회 본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친 경우는 54건(3.6%)이었다. 신설 규제는 3.2%, 강화 규제는 4.4%였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 · 강화할 때는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는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친 뒤 중요 규 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 고, 비중요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사를 거 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 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의 0.2%였다.

신설·강화규제의 83.8%는 국회 심의

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졌다.

법령 위계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시행 령(29.5%),고시·지침·규정·요령등행 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 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 발의) 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행정 규제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서 심사대상 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의 원 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 지 않았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 올해 정책금융 500조 공급 중소기업엔 38조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분야 집중 지원 증권사 등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20일 "2021년 정책금융을 전년 계획보 다 약 16조 원 확대하여 약 500조 원 규모 로 공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 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분야별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 공인, 중소·중견기업에 302조 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 원+알파  $(\alpha)$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 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총 101조6000 억 원을 공급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 에서 "이번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취약 분야 지 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애로 파악, 개별 지원사례 검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생산적 분야로의 민 간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를 한시 적용한다. 세종=김지영기자 jye@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 회사들에 대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 하도록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외화 유 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외화자산-부 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 해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 한다고 밝혔다.

또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 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 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설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중소기업·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38조4000억 원의 특별 융자를 공급한다. 융자가 36조3000억 원, 보증은 2조2000억 원 수준이다. 또 총 10 조1000억 원 수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으로 명절 기간 전후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선 중소기업·소 상공인에 대해 총 43조8000억 원을 만기 연장한다.

명절 성수품 수급과 관련해선 시과 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3~1.8 배 확대하고,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 톤까 지 무관세 수입할 수 있도록 긴급할당관세

### 작년 친환경차 80만대 돌파… 수소차 1만대

지난해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가 8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1 만 대를 넘겼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0만 대 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360만대)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신규등록 대수 (191만 대, 전년 대비 6.2% ↑)는 3년 만 에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신치출시 효과 및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작용한 것 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82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3.4%)이 전년 (2.5%)보다 0.9% 포인트(P) 증가했다. 수소차는 2015년 29 대에서 시작, 2019년 5000대에서 지난해 1만대로 115% 증가하는 등 보급이 본격 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13만4962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승용차가 2만 9690대, 화물차 1만5436대, 승합차 1009 대였다. 전기 화물차는 1톤 전기 화물차 출시 영향으로 많이 증가했다.

경유 자동차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3%

#### 친환경차등록대수추이



에서 31%로 하향 추세다.

전체 등록 대수 중 국산 차는 2168만 대 (89.0%), 수입차는 268만 대(11.0%)로 수입차 점유율이 2019년 10%를 넘긴 이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

### 2019년 공공일자리 15만1000개 증가

### 50대 이상에서 8만개 늘어

지난해 공공부문의 50대 이상 일자리가 전년보다 8만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을 넘 는 규모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 문 일자리 통계'에서 2019년 공공부문 일 자리가 전년보다 15만1000개(6.1%) 증 가한 260만20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통계에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가령 취 업자 1명이 복수의 기관(사업체)에서 종 사하고 있다면 일자리도 복수로 집계됐 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일 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 어 공공부문 신규채용이 확대됐음에도 두 연령대의 일자리 증가 폭은 20대 이하 (3만4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50대와

60세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는 정부기관 비 공무원에 집중됐다. 주로 중앙행정기관이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 또는 기간 제근로자다.

그나마 50대는 기존취업자 고령화와 맞 물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공 무원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비공무원을 중 심으로 급증하며 50대 다음으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기존 취업자 고령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기인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0대는 파 견·용역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한 영향이 있다"며 "60대 이상은 일부 지자체 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제공하는 노인일자 리 사업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정치권-금융당국 '대출이자' 동상이몽… 은행 '속앓이'

與,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초점 "한시적 이자 중단" 법 발의 시사 빚투·영끌 차단 총력전 나선 당국 금리 인상·원금 분할상환 등 추진

은행 "서로 딴소리… 과도한 간섭"

"이자 멈춤법을 만들자."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지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 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자 멈춤법'이란 여당의 제안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 공동 분담이라는 취지는 수긍할 만하나, 주 수식원인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얻는 수익)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반응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이자를 올려 영끌(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음)·빚투(빚내



서 투자)를 막겠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이라면서 "(은행에 이자를 갚는 건물 임대인들에게)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기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은행이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도 시시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은행에 대출이자 인하와 감면을 압박할 수 있는 발언 발언인 만큼 금융권은 즉각 반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중단과 제한은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을 흔드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해 놓고선은행 이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금융권에 희생을 강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 월 16일 시중은행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예대 금리 완화에 마음을 써 달라"며 예금 과 대출금리 격차 축소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당의 압박과 별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분기 '영 끝·빚투'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신용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은행권 대출총량 관리에 나섰다. 은행권은 연말 신용대출을 일시중단하는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연초신용대출 중단이 풀리면서 대출 수요가 폭증하자 급기야 원금 분할 상황까지 추진하는 등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침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1분기 중 가계부 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했다. 보통 신용대출을 받을 때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고액에 한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원리금 균등 상환)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대출 1억 원을 연 3%, 5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론 매달 이자 25만 원만 내고(매년 300만원), 만기에 원금 1억원을 갚으면된다. 그러나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면 매달 18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매달 부담해야하는 금액만놓고 보면155만원 늘어어나는셈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적용금액과 상환방식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인 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 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금융당국이 이자 를 낮추면서 대출 규모 축소를 하는 정책 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콜센터 가는 뱅커들… 영업점 통폐합 논란

# "안녕하십니까. 한국씨티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 등 통상적인 은행 업무를 하던 A 씨는 이제 영업점이 아닌 '고객가치센터'에서 고객을 상담한다. 일부 직원들끼리 콜센터라고 부르는 곳이다. 2017년 씨티은행은 점포 89개를 통폐합하면서 정규직 인원 감축은 하지 않았다. 당시 은행은 콜센터 용역 직원들과 계약 종료 후 A씨 같은 정규직 직원들을 고객가치센터로 배치했다.

씨티은행은 최근 일주일 사이 안산 지점, 대치 출장소, 동부이촌동 출장 소, 동춘동 출장소 등 4곳의 영업점을 통폐합했다. 씨티은행은 20일 영업점 통폐합에 대해 "디지털 기반을 확대하고 영업점의 환경 개선과 이전을 통해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 디지털 뱅킹이 가속화 되는 흐름에 따르기 위해 영업점을 통·폐합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을 이유로 영업점을 통폐 합하는 것은 씨티은행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은행)의 영업점은 5년 만에 404개 줄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6 년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5대 시중은행 국내 영업점포 현황					
2016년 9월	4943기				
2017년 9월	4778기				
2018년 9월	4708기				
2019년 9월	4683기				
2020년 9월	4539기				
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코로나發 비대면·디지털 확산 은행 점포 5년간 404곳 줄어

### 금감원, 점포 통폐합 속도조절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수는 4943개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엔 4539개로 감소했다. 5년 동안 4.5일 마다 은행 지점 하나씩 사라진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모바일 프로세스 통해 웬만한 은행 업무가 다 해결 가능하다"며 "디지털이 주류가 되면서 대면 영업점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점포 축소의 이유로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강남에 있는 한 영업점은 임차 비용만 억 단위"라며 "사전분석을 많이 하고 점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금융 소외 계층 배려를 이유로 점포 폐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 전 예고했다. 은행이 점포 폐쇄를 하려 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영향 평가를 분기마다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은 또 점포 폐쇄 3개월 전 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까지 은행은 점포 폐쇄를 할 때 △폐쇄 후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등 영향 평가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 ATM 등 대체 수단 결정·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전 사전 통지를해왔다. 이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였다. 하지만 금감원이 시행 세칙 개정을사전 예고하면서 은행이 점포를 없애는과정은 까다로워졌다.이에 대해 은행관계자는 "금감원의 의도는 공감하지만최근 디지털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카카오뱅크에서 보듯 디지털 뱅킹이 대세가 될 텐데 언제까지 이 흐름을 거스를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 원은 금감원 조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은행의 점 포 폐쇄를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 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우리온행 × LCK 파트너 협약식 C 우리온행 × LCK

우리(銀), LCK와 파트너 계약 체결 우리은행은 19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프로 e스포츠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금융권 최초로 LCK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던 우리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권광석(왼쪽) 우리은행장과 오상헌 LCK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銀, 만 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

#### 2~3년치 임금 + 3400만원 지급

KB국민은행이 올해 1973년생(만47세)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1967년생까지였던 지난해보다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보로금(성과급)은 기본금의 200%에 현금 1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희망퇴직은 1965년생~1973년생까지 받기로 했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대상이대폭 확대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전년과 동일)를 지급하고, 학기당 350만 원씩 최대 8학기 분의학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재취업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28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올려추가 지급한다.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

직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 건은 전년과 같았다. 국민은행은 오는 22 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은 200% (기본급기준)에 격려금 1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노조는 특별보로금 300% 이상을 주장해 왔으나 이보다 소폭 내린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정해졌다. 단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에 동참하도록 했다.

창구전담직원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 (TFT)을 즉시 정상화하기로했다.이외에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토스뱅크 출범 준비 '착착' … 비바리퍼블리카, 인력 확충

#### 전 계열사 1분기 300명 이상 채용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 바리퍼블리카가 1분기 300명 이상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토스 뿐 아 니라 토스인슈어런스·토스페이먼츠의 지 속성장과 더불어 토스증권·토스혁신준비 법인(가칭 토스뱅크)의 본격 출범이 예정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토스와 4개 계열 사를 더한 전체 조직 규모가 올 1분기 내에 10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토스는 각 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인력도 빠르게 확충해 왔다. 토스 5 개사 임직원 수는 2020년 말 기준 780명 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전체 조직 규모가 2배 이상 급성장했다. 토스증권은 내달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인터넷은행을설립하기 위한 토스혁신준비법인은 7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이에 토스 전 계열사는 올 1분기를 '대 규모 채용 기간'으로 정하고 3월까지 약 33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로는 개발 직군 120명, 비개발 직군 210명 을 뽑는다.

토스의 채용 절차는 서류 지원부터 최종 합격 발표까지 최대 3주 이내에 마무리된 다. 지원서는 상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 및 직무(일부 과제 전형 포함)·문화 적합성 인터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 부디자인 직군에 대해서는 필수 포트폴리 오를 요구하지 않고, 일부 개발 직군의 경 우 과제와 면접을 하루에 진행하는 등 직 무 특성에 따라 전형을 간소화했다.

이번 대규모채용 기간에는 재지원 제한 기간을 없애 최근 6개월 내 지원했다 탈락했더라도 같은 직무 또는 다른 계열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전 직군 정규직 입사자에게 최대 1.5배 연봉을 제시하고 1억원 가치의 스톡옵션을 부여해 왔던 토스의 보상 정책은 오는 3월까지 유지된다.

### 카뱅, 예·적금 금리 최대 0.2%P 인상

카카오뱅크는 예·적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p)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상된 금리는 이날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만기 6개월 미만 정기 예금의 금리는 0.1%p, 6개월 이상은 0.2%p 오른다. 만기 1년 기준 연 1%였던 정기예금 금리는 이날부터 연 1.2%로 인상된

다. 자유 적금은 만기 기간에 관계없이 0.2% p 오른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적금의 금리는 현재 연 1.1%에서 연 1.3%가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0.2% p 우대 금리가추기돼 최대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수신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직원이 1명이든 100명이든 기업을 한다는 것은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내세울 만한 실적, 가진 자산이 부족하다 해도 미래의 가능성을 알아봐 줄 은행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업의 대·중·소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여기, IBK기업은행이 있습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55조 SSD 시장 잡아라"

2024년까지 매년 18% 성장 전망 삼성, 최대 4TB '870EVO' 출시 SK 128단 낸드 'Gold' 국내 첫선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시 1위 점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스트 코로 나 시대 먹거리로 떠오른 SSD(솔리드스 테이트드라이브) 시장에서 한판 붙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 고화질 게임 수요 증가에힘입어 SSD는 반도체 업계에 '효자' 품목이 됐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9년 약 220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SSD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해 501억 달러(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초부터 SSD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반도체를 결합한 저장장치로 기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체하는 차세대 저장장치다.

SK하이닉스가 첫 소비자용 SSD를 출시한 데 이어, 삼성전자 역시 20일 SSD 신제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삼성전자가 이날 발표한 SSD 'EVO 시 리즈'는 글로벌 소비자용 SSD 시장의 베 스트셀러 제품이다. 신제품 '870 EVO'는 고성능을 원하는 일반 PC 사용자뿐 아니



한 소비자들이 폭넓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50 GB·500GB·1TB·2TB·4TB 등 5가지 용량의 '870 EVO' 제품을 한국,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 중국 등 40여 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870 EVO'에는 최신 128단 6세대 V낸 드와 컨트롤러가 탑재됐다. 또 사용자의 작업량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하는 인텔리 전트 터보라이트 (Intelligent TurboWrite) 기술이 적용돼, 체감 성능

을 높였다.

'870 EVO'는 SATA 인터페이스에서 구현 가능한 최고 성능인 연속읽기 560 MB/s, 연속 쓰기 530MB/s의 속도를 지원하고, 임의읽기 9만8000 IOPS(초당 입출력 작업 처리 속도), 임의쓰기 8만8000 IOPS의 속도를 제공한다. 또 MS 윈도의 전원관리 기능인 '모던 스탠바이(Modern Standby)'를 만족하는 등 최신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동안 D램에 편중된 사업구조로 되어 있던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국내 출시한 소비자용 SSD는 'Gold P31'과 'Gold S 31' 두 종류다. 이들 제품은 SK하이닉스 가 2019년 미국에 먼저 선보여 호평을 받 은 '슈퍼코어 SSD' 시리즈다. 두 제품 모 두 128단 낸드플래시가 탑재됐다.

Gold P31은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등의 장치를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하도록 고안된 'PCIe'인터페이스를 갖췄다. PCIe 3세대 제품군 중 최고 수준인 초당 3500MB의 순차 읽기와 3200MB의 순차 쓰기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용량은 1TB 와 500GB 두 가지다. SATA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Gold S31은 범용 제품이다. 초당 560MB의 순차 읽기, 525MB의 순차 쓰기가 가능하다. 1TB, 500GB, 250GB 세 가지 용량으로 나왔다.

지난해 말 인텔의 낸드사업부 인수를 발표한 SK하이닉스는 SSD 시장에서 1 등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 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SK하이닉 스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 7.1% 점유 율로 5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위 인 텔(29.6%)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할 경 우, 36.7%에 달해 1위인 삼성전자를 넘 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확산으로 SSD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낸드플래 시 적층 경쟁과 함께 낸드 기반 SSD 제품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 했다. 송영록기자 syr@

삼성전기 "더 작고 얇게"

0.65mm MLCC 상용화

삼성전기가 두께 0.65mm 초슬림 3단자

MLCC를 개발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로

MLCC는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안정

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전자기기 내 핵

심 부품으로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3단자 MLCC는 일반 MLCC보다 접지

삼성전기가 개발한 3단자 MLCC는

1209크기(1.2mm X 0.9mm)에 두께 0.65mm

다. 기존 제품 두께인 0.8mm 대비 18% 줄

최근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5G 이동

통신・멀티카메라 등다기능・고성능화로탑

재되는 부품의 수는 늘어나지만, 크기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작고

단자를 1개 더 추가한 제품으로, 고주파

전원의 노이즈를 줄이는데 용이하다.

여 스마트폰 설계 자유도를 높였다.

공급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등 관련 제품에 필수로 탑재된다.

# 현대차, 넥쏘 수소연료전지로 2200가구 전력 생산

수소차 모듈, 발전용으로 활용 울산서 2년간 '시범운영' 돌입

현대자동차가울산에서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활용해 전력 생산을 시작 한다. 현대차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연 간 2200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8000 MWh(메가와트 시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독자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준공식을 20일 개최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3사는 2019년 4월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 양해각서(MOU)'를 맺고 울산 화력발전소 내에 1MW(메가와 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날 준공식을 기점으로 3사는 향후 2년간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협약 추진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가 개발한 1MW급 수소연료전



울산 화력발전소 내 위치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발전 시스템. 사진제공 현대차

지 발전 시스템은 500kW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컨테이너 모듈 2 대로 구성돼 있다. 넥쏘 수소 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 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 되는 방식이라 향후 컨테이너 대수에 따 수소한 부생수소를 수소 배관망을 통해 공급 라수십에서 수백 MW로 공급량을 확장 다.

받는 해당 설비는 연간 생산량이 약 8000MWh로, 이는 월 사용량 300kWh를 기준으로 약 22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여러 대의 넥쏘수소전기차 파워 모듈이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방식이라 향후 컨테이너 대수에 따라 소생하다 요한다.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수소연료전 지 발전 시스템은 빠른 출력 조절 측면에 서도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차별 화한 장점이 있다. 해당 설비에는 기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실시 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효 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가진 전력 수급 변동성의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대차와 한국 동서발전, 덕양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대부분은 해 외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부품 교체 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 향후 시장이 확 대될 때 발전용 연료전지 가격과 함께 수소차 가격 하락에도 이바지할 전망이 다. 유창욱 기자 woogi@

노우리 기자 we1228@

얇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5개 택배사 노조 5500명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서 '탄소중립성장' 알린다

### 택배노조가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 표를 진행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시 물류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다. 택배사들은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을 진행한다.

전국택배노조는 20일 오전 0시부터 총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택배노동자 근 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 책임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 5500여명은 21일밤 12시까지 48시간동안 무기명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한다. 투표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택배노조는 27일부터 총파업에들어간다. 노조와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력투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신학철〈사진〉 LG화학 부회장이 국내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세계경제포럼 (WEF·다보스포럼)의 패널로 초청받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LG화학 기후변화 대응 소개

국내 기업인 '유일' 패널 초청

20일 LG화학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이 달 25~29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 럼 '다보스 어젠다 주간'에서 '기후 변화 대 응 방안(Mobilizing Action on Climate Change)' 세션에 초청받았다.

신 부회장은 27일 열리는 세션에서 LG 화학의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 등을 활용한 직접감축(Reduce) △재생에너지사용을 통한 간접감축(Avoid) △산림조성등을 통한 상쇄감축(Compensate) 등 세가지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LG화학은 지난해 7월 국내 화학 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하고 전세계 모든 사업장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생분해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PCR (Post-consumer Recycled ) '화이트 ABS'를 최초로 상업 생산하는 등 환경과 사회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신 부회장이 참가하는 세션은 최근 세계 경제포럼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라 더욱 의미가 깊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부터 '탄소 중립을 향한 도전(The Net-Zero Challenge)' 보고서도 별도로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높다.

신 부회장이 이번 세션의 패널로 초청된 데에는 세계경제포럼의 이사회 멤버인 도미닉 워프레이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 도미닉 워프레이는 '탄소 중립을 향한도전' 보고서 제작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부회장과 인터뷰를 가진 뒤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세션의 적임자라판단해 정식 패널로 초청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설명이다.

세계경제포럼 회원들의 관심도 높아 이 미 70여 개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참관 을 신청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금호리조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 자로 금호석유화학이 선정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 금호리조트 및 금호홀딩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석유 화학을 선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전날 실시한 본입찰에는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화인자산운용, 브이아이금융투자, 칸서스자산운용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금호리조트 지분 100%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홀딩스 지분 39.3%다.

금호리조트는 아시아나항공 산하 금호 티앤아이 (48.8%), 아시아나IDT (26.6%), 아시아나에어포트(14.6%), 아 시아나세이버(10.0%) 등이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 금호리조트는 화순 리조트 등 콘도 4곳, 워터파크 3곳, 아시아나컨트리 클럽(CC) 등의 자산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도 골프장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아시아나CC에 관심이 컸다. 인수 가격은 2000억~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주혜기자 winjh@

# 오너 부재 충격 이번엔 다르다…집단경영도 '살얼음판'

### 삼성 '비상경영' 어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선장 잃은 삼성의 경영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은 당분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겠지만, 한계가 뚜렷해 그룹 컨트롤 타워를 통한 효율적 집단경영시스템이 절 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비상경영 방식은 2017년 이 부회장 첫 구속 당시처럼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외에는 딱히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김기남 DS부문장(부 회장)을 비롯해 김현석 CE부문장 사장과 고동진 IM부문장 사장 등 현 경영진이 부 문별로 경영을 책임지는 가운데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각 회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 약화, 신규 투자 지연 등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8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을 중심으로 탄생한 '미니 컨트롤타워'격인각 TF는 역할의 한계와 부정적 시선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이 아니라 당장 생존을 고민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됐던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삼성은 대규모 투자계획 과 사장단 인사가 연기되는 등 큰 어려움 을 겪었다. 이번에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 李 부회장 옥중경영 리스크 뚜렷 미전실 해체 이후 구심점도 미흡 수십조 규모 투자 의사결정 난항 설문조사 46% "징역형 과하다"

을 정도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이란 특수 상황에다 경영권 승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탓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 은 최소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하 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회사 업무 외에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정리와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옥중에 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규모 투자와 M&A 역시 멈출 위기 다. 특히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반도 체 투자를 옥중에서 결정하는 건 쉽지 않 다. 월급쟁이 CEO가 과감하게 투자 결정 을 내리기에도 지나치게 큰 규모다.

이 부회장은 2017년 7월 구속 상황에서 도 2021년까지 반도체 분야 30조 원 투자 를 결정한 적이 있지만, 이미 검토되고 계 획돼 있던 내용을 승인한 형식이었다.

결국,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 국내외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 획 발표도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이 몇 년 주춤하는 사이 대만

###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와 M&A를 추진하면서 산업 지형도가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오늘의 삼성은 IMF 외환위기를 혁신의 전기로 삼았기에 기능했다"며 "앞으로 1~2년은 많은 산업에서 구조 개편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인데,이 시점에 투자와 구조조정의 실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삼성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신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계 일각에선 과거 미래전략실처럼 그룹 현안을 토론하고 의사를 결정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계열사를 둔삼성 같은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래야계열사간 사업과 인력 관리, 비용 효율성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다. 계열사 CEO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 된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6%로 집계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도 요건만 맞으면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다만 사건의 성격상 삼성 측에서 굳이 몇 개월 더 빨리 나오려고 신청할 것 인지,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 수"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준법위 출범 1년…향후 행보는

### 그룹 '컨트롤타워' 준법경영 틀 마련

### 미전실 해체 후 만든 사업지원TF 준법감시 강화로 기능 재정립 관측 李 부회장 부재 속 오늘 정기회의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 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 다. 준법위는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 자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이고 실질 적 준법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 를 안게 됐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 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는 준법경영 개선안을 만들어 지난달 28일 준법위에 제출했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선안을 검토, 논의하고 관계사들에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6일에는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 담회를 열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준법위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의 시민단 체 후원 내역 무단 열람 사과 △시민단체 와의 첫 만남 등 준법위가 핵심 의제로 삼 은 승계, 노조, 소통 3가지 분야에서 성과 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은 과제는 삼성 계열사 외에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의 준법경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지원TF는 삼성이 2017년 초 그룹 해체의 상징으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 (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조직이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송년 사를 통해 "삼성도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으나 삼성에는 이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구성	외부 4인, 내부 1인			
역할	삼성 계열사 준법 감시·통제			
준법 감시 대상 기업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출범	2월			

러한 역할을 하는 지주회사·지배회사 등 법적 주체가 없다"며 "그룹 총수 중심의 컨 트롤타워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준법 리 스크를 그룹 이슈의 주요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이 사업지원TF의 준법 감시를 종 전보다 강화하면서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수인 이 부회장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사업지원TF에 손을 대는 것도 부담스럽다. 자칫 그룹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쳐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준법위가 삼성의 '최고 권력기구'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준법위의 활동에 이 부회 장의 적극적 동의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실적으로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초 준법위와 만 나 면담을 정례화하고, 준법위의 독립적 활 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준법위의 진실성 있는 활동도 과제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위원회를 재판에 유 리하게 쓰기 위해 급조한 '겉치레 면피용' 꼼수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위 원회가 '초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다', '옥상옥 제도다',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난 한다"며 "여러 갈래로 나뉜 시각차를 줄이 는 것이 준법위의 올해 과제"라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이원다이에그노믹스㈜(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 "웹툰 올리자마자 불법복제" 작가들 피해액 연간 수천억

#. 웹툰 작가 A씨는 웹툰이 업로드 될 때마다 검색창을 켠다. 자신의 작품을 검색만 해도 불법 사이트가 처음으로 뜬다. 원고가 업로드 되자마자 벌어지는 일이다. 플랫폼에 항의를 해봤지만 해외에서버를 두고 있어 잡는 데 비용이 더 든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우후죽순 다른 사이트가 생긴다는 말은 덤이었다. "그래도작가님 작품이 재밌으니 퍼가는 거 아니겠어요?" A씨는 마지막 말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다.

K웹툰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웹툰 불법 유통의 피해도 맞물려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만화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0.3%는 디지털만화 불법 이용 경험이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를 공유해주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하는 경우가 38.9%, 웹하드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9.6%,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게시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3.8%였다.

웹툰 불법 유통은 작가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작가 B씨는 "최근 웹 툰의 성장세에 따라 유료결제로 수익을 이용자 60% "불법 이용 경험" 유료결제 줄어들어 수익 급감

해외서버 악용 법적대응 난항 손배소 이겨도 배상액 '쥐꼬리'

네이버, 복제방지 AI기술 활용 카카오,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얻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작가 수익에서 미리보기 등 유료 결제분이 줄어들면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8년 발간한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피해액은 1조8621억 원에 달했다. 최근 K웹툰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작가와 플랫폼이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는 추세다. 지난 15일 웹툰 작가들은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 3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작가 1인당 150만~600만 원을 배



작년 10월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에서 지목한 불법 유통 사이트 화면.

상하라는 판결이었다. 2019년 10월 작가들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데 비하면 적은 금액만이 인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불법 사이트에서 열람된 만큼 정식으로 과금했을 때 얼마 의 손해를 봤는지를 추정해 (배상 금액 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조회수 등 데 이터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피 해액은 어마어마한데 일부 금액에 대해 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도 나름의 대책을 모색 중이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는 AI 기 술 '툰레이더 (ToonRadar)'를 활용한 다. 웹툰 불법 업로드 인지 후 웹툰에 심어진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읽는다. 평균 10분 안에 유출자를 적발, 재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툰 레이더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며 "툰레 이더 기술 등을 활용해 경찰이나 검찰 쪽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 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최근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7일 어 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0억 원 배상 판 결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 서 드는 비용도 있고 피해액 대비 배상액 이 크진 않지만 창작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소 업체나 개인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카카오페이지에서) 업체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웹툰 불 법유통 대응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 식회사, 탑코, 투믹스 등과 손잡고 불법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 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현재 당장 어른아이닷컴 같은 성과는 없지만 진전 사항들은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의 노력에도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성황이다. 19일 오후 11시 기준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에만 하루에 약22만5000명이 방문했다. 네이버 인기웹툰 '뷰티풀 군바리', '집이 없어',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이 실시간으로 업로드중이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하는 미리보기 분량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다

작가 C씨는 "웹툰 한 컷 두 컷이 뚝딱나오는 게 아니"라며 "300원, 500원 결제하기 싫어서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인식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 우버 '가맹택시'로 한국시장 재도전

서울서 시범서비스 시작

우버코리아가 가맹 택시 '우버 택시'를 서울에서 베타 서비스로 운영한다.

20일 신규 발표된 우버 택시는 기존에 제공해왔던 우버 일반 택시와는 차별화된 가맹 택시 서비스다. 일반 택시와 같은요금이 적용되며, 승객은 우버 앱에서 기존 서비스인 일반 택시, 우버 블랙 등과신규 추가된 우버 택시 중 원하는 옵션을선택할 수 있다. 우버는 1분기 이내에 가맹 택시를 1000대까지 증차해 원활한 차량 공급으로 승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계획이다.

우버는 우버 택시를 처음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운행 거리에 따라 최대 만원할 인을 제공하며, 이후 탑승부터는 3월 31일까지 20% 상시 할인을 적용한다. 단이용자들은 차량 요청 전미리 우버 앱에 프로모션 코드(첫 탑승 최대 1만 원할 안: KRFNF10, 20% 상시 할인: UBERKR20)를 등록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버는 드라이버에게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변에 있는 우버 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톰 화이트 우버 한국 총괄은 "우버 가맹 택시 서비스는 위생 및 방역 수칙을 철저 히 준수하며 최첨단 안전 기능을 제공해 모든 우버 앱 이용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최대 50만원"… SKT도 '갤S21 지원금' 올렸다

LG U<sup>+</sup>, 최대 지원금 앞세워 사전예약 주도권 타사 지원규모에 맞춰 기존보다 3배 올리기로 가입자 유치경쟁 본격화…알뜰폰 견제도 노려

KT에 이어 SK텔레콤(SKT)도 삼성전 자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 다

SKT는 20일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기존의 3배로 올렸다. 사전예약 첫날인 15일에 예고한 공시지원금은 8만7000원~17만 원이었다. 변경된 공시지원금은 △슬림(월 5만5000원) 27만 원 △스탠다드(월 7만5000원) 35만6000원 △프라임(월 8만9000원) 45만 원 △플래티넘(월 12만5000원) 50만원이다.

공시지원금은 현행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라 한번 공시하면 최소 1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예고 공시지 원금은 개통 시작일에 확정될 때까지 변경 할 수 있다.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은 이달 22일 확정된다.

SKT가 한 번에 3배가량 지원금을 상향한 데에는 타사와의 지원금 규모 차이가워나 컸던 탓이다. LG유플러스는 처음부터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예고하며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었다. 15일 사전예약일 당시만 해도 지원금규모는 LG유플러스, KT, SKT 순으로 격차가 두드러졌다.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지원금에 KT 는 공시지원금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기 존 규모의 2배로 상향해 최대 50만 원 수 준을 맞췄다. K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 상생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시리즈를 공개한 1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시민이 갤럭시 S21과 S21+ 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고객 차별 해소를 위해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높였다"고 밝혔다.

KT에 이어 SKT까지 LG유플러스 수 준으로 공시지원금 규모를 맞추면서 5G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093만2363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섰다. 가입자 확대에는 지난해 10월 말 출시된 아이폰12가 주효했다. 아이폰12는 애플의 첫 5G 단말기로 통신사들은 5G 가입자 확대의 기회로 삼았다.

이달 29일 정식 출시하는 갤럭시S21 시 리즈 3종은 5G 전용 폰이다. 다만 아이폰 12와 마찬가지로 자급제로 구입할 시 알뜰 폰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알뜰폰 확대 추세에서 갤럭시 S21을 알뜰폰 시장에 뺏기지 않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해 알뜰폰은 2019년과 달리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 난해 12월 이동전화 번호 이동자 수 현황 에서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순 증 가입자는 4만3949명으로 나타났다. 이 는 월로 따졌을 때 지난해 최대 규모다. 지 난해 6월부터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한 가 입자는 순증했고, 그 증가세도 가파르게 이어졌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메쉬코리아, 부릉 상점주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서비스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 하는 종합 디지털 물류 기업 메쉬코리아가 상점주 편의성을 높인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메쉬코리아는 부릉 상점주 전용 '부릉 사장님사이트' 내에 부가세 신고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 전국의 '부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4만 5000여 상점 주는 부릉 사장님사이트를 통해 2020년 부가세 신고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메쉬코리아가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데

이터 자동 열람'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하게 부가세신고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부가세신고기간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매월 자료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세신고자료를 신청하여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매월 사이트접속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상점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메쉬코리아는 부릉 사장님사이트를 이 용하는 상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해, 상점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 침이디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매년 부가세 신고자료 관련 문의를 주는 상점주들이 많 았다."며 "상점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 해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서비스를 오픈 하게 됐으며, 앞으로 상점의 매출 증진과 운영 효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 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릉 사장님사이트'는 배송 매출 및 건수, 평균 배송비부터 배달이 많이 발 생하는 지역을 알 수 있는 배달 지역 분포 도까지 상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를 확인할 수 있는 상점주 전용 홈페이지



다. 상점주는 '부릉 사장님사이트'를 통해 매출 관리는 물론 배달 어플리케이션 내 효율적인 광고 지역 설정까지 다양한 도움 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누구나 크리에이터 될 수 있다" 채널개설 문턱 낮춘 '쿠팡 라방'

유통공룡으로 덩치를 불린 쿠팡이 '라이 브 방송' (이하 라방)에 나서며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쿠팡이 선보인 라방은 유통 사가 직접 주체가 되어 상품을 파는 방식 이 아닌,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개설해 하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오픈마켓과 유사하다.

현재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조만간 IOS(아이폰 운영체제)에 테스트를 거쳐 정식 서비스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부터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쿠팡 라이브'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현재 화장품 등 뷰 티템으로 품목을 한정해 안드로이드 버전 을 테스트 중이다.

전통 유통업체들이 판매 주체가 직접 유통사가 되는 방식을 대부분 채택한 것과 달리 쿠팡의 라방은 개방형 플랫폼이다. 크리에이터나 판매자는 누구나 등록해서 방송할 수 있다. 유통채널 중 G마켓이나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을 라이브 커머스에 도입한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쿠팡 라이브 크리에이 터'라는 이름의 앱을 출시하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방송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 크리에이터는 라방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 며 상품을 소개하고, 참여한 방송의 판매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벤더(중간 유통업체)는 직접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거나 크리에이터에 의뢰해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쿠팡에 입점한 업체라면 간단한 절차 안드로이드 체제 시범 운영 후 IOS 테스트 거쳐 조만간 론칭 고객과 소통해 상품 소개·판매 '온라인·모바일화 홈쇼핑' 형태

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제품을 쿠팡 라이 브로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는 롯데나 신세계 등이 직접 주체가 돼 크리에이터를 섭외하고 직매입이나 입 점한 상품을 파는 방식과 다르다. 이른바 홈쇼핑의 온라인 · 모바일화 버전인 셈이 다

롯데백화점의 '100LIVE'를 비롯해 최 근 신세계가 공들이는 '쓱라이브'도 유통 사가 브랜드나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특정 시간을 지정해 방송을 내보낸다.

IT업체 중에 라방에 뛰어든 카카오커머 스 역시 전용 스튜디오를 갖추고 고퀄리티 방송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사의 통제 하에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방송의 퀄리 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에 비해 개방형 라이브 방송을 채택한 곳으로는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했고, 7월에는 쇼핑라이브 로 정식 출범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 구나 채널을 개설해 판매가 가능하다.



쿠팡이 개방형을 채택한 것은 나스닥 상 장을 추진하면서 기업공개 과정에서 가치 를 높게 평가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마켓 방식은 거래액이 높아 유통사의 덩치를 불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 만, 크리에이터 등의 관리가 어려워 유통 사 자체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 점도 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시범 테스트 중으로 열려있는 오픈마켓 형식의 라방으로 보면 된다"면서 "정해진 사람에게만 시범 서비스를 하는 안드로이드 클로즈 베타 서비스로 아이폰 IOS까지 가능할 때 정식 론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가의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구색 갖추기가 아닌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전통유통업체와 이커머스, 홈쇼핑 업계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업체까지 속속뛰어들면서 올해 라방 시장 규모는 4조5000억원에서 2023년엔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주현 기자 jooh@



### "겨울에도 비타민 챙겨요"

이마트가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 보충을 위한 '건강 비타민 충전소'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마트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제주 한 라봉·레드향, 파프리카, 단감, 흙당 근, 적상추 등 비타민이 풍부한 과 일, 채소 7종을 20~30% 할인 판매 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 이마트24 '조선호텔 유니짜장' 밀키트 출시

수도권 내 매장부터 판매… 4월까지 전국 확대

호텔 레스토랑 대표메뉴가 편의점에 들어온다.

이마트24는 프리미엄 중식 밀키트 '조 선호텔 유니짜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 일 밝혔다. 1월 수도권 내 매장을 대상으 로 판매를 시작한 후 올해 4월까지 전 점으 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호텔유니짜장은신세계조선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광동식 차이니스 레스토랑 호경전의 대표메뉴 짜장면을 밀키트로 구 현한 상품이다.

돼지고기와 양파를 적절한 크기로 자른 후 호경전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춘장을 센불에 볶아 유니짜장 특유의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가 조선호텔 유니짜장을 선보이게 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이줄어들고 집밥 문화가 자리잡으며 가까운 편의점에서 가정 간편식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마트24가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도입한 피코크 국·탕·찌개류 10종의 전월 대비 매출 신장률은 20년 11월 25.9%, 20년 12월 30.4%로 증가세다.

조선호텔 유니짜장은 총 2인분 분량 (860g)이다. 이마트24는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쓱닷컴, 이마트와 동일한 가격인 7900원에 판매한다.

이유진 이마트24 데일리팀 선임바이어 는 "조선호텔 유니짜장은 지난해 8월 출시



된 이후 지금까지 17만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라며 "최근 집 밥족 증가로 가정 간편식에 이어 레스토랑 간편식(RMR)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 구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팬데믹시대주목받는 건강식품 '건기식' 간 보는 유통업체들

이마트 전문 매장 오픈… 롯데마트 '비바 건강마켓' 출원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한 식품·유통업체들의 경쟁 이 치열하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 1905억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 년(5조9646억원) 보다 3.8% 커진 수 치다.

특히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건 기식을 추천하고, 소분 및 배송 판매 하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 업으로 허용하면서 건기식이 유통가 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식품, 제약 등 관련 기업 들은 물론 유통업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맞춤 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앞 두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VIVA(비바) 건강마켓'의 상표 권을 출원했다〈사진〉. '비바 건강 마 켓'은 특허 제 05, 21, 29, 32, 35, 39 분류로 각각 약제·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 기,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등 에 해당한다.

롯데쇼핑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 지만, 업계에서는 롯데마트가 건강기 능식품 매장을 론칭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해 7월 올가홀푸드 방이점에 소분 건기식 매장인 '퍼팩'



을 오픈했으며 이마트도 지난달 말 서울 성수동 본점에 건기식 매장인 'IAM(아이엠)'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아이엠'은이마트가스타업인모노 랩스와 손잡고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에 기반해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 천·판매하는 매장이다. 개인마다다른 건강 상태와 라이프스타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만을 조합해, 이를 간편히 섭취할 수 있도록 1회 섭취량 을 한 팩씩 개별 포장해 제공하는 방 식이다.

영양제 종류는 비타민·칼슘·마그네 슘·아연·밀크씨슬·테아닌·히알루론산 등 21종으로 최대 12종의 영양제를 조합할 수 있어 총 169만여 개의 조합 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성수점을 시작 으로 연내 운영 점포를 6개 점으로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의 강성현 대표는 지난달 말 이마트 본점에 문을 연 '아이엠' 매 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만나 강기능식품과 관련된 AI 추천 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 다

남주현 기자 jooh@

### 백복인 KT&G 사장 'ESG경영' 강화

#### 기획팀 등 전담조직 2곳 신설

백복인〈사진〉 KT&G 사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선다.

KT&G는 지난해 ESG 전담 조직인 'ESG기획팀'과 '에너지환경기술팀'을 신설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를 강화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KT&G는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업계 ESG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을 세웠다.

전략기획본부 내 신설된 'ESG기획팀' 은 전사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컨트롤타 워 임무를 수행한다. 글로벌 ESG 표준 확 대 도입과 관련 지표 신설, I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ESG 경영 을 전사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환경기술팀' 은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와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탈석탄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빗물 취수방식도입,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T&G는 글로벌 환경위기 극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환경



관리 전담 조직으로 녹색안전부를운영하 고 있다. KT&G는 2 MWh급태양광발전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고, 전국 5

개 공장에서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전력감시 시스템을 구축 한 바 있다.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자원도 확대하고 있다. 보루 포장지의 경우 기존 비닐류 케이스 사용을 배제하고 펄프 사용량이 적은 종이로 대체해 연간 펄프 사용량을 1500 톤 감축했으며, 담뱃갑 내부 속지 개선을 통해 연간 알루미늄 사용량을 850톤 감축했다. 담배 포장지의 경우 전량 FSC(국제산림협회) 인증 펄프를 사용한 종이만을 취급하고 있다.

KT&G는 이러한 ESG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 관인 MSCI가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2019년 BB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으로, 이는 글로벌 톱3 담배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KT&G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다. 김혜지 기자 heyji@

# '1조 클럽' 국내 제약사, 코로나 비즈니스 전력투구

###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년… K바이오 '코로나와 전쟁'

GC녹십자, 혈장치료제 개발… CEPI와 백신 위탁생산 협약 셀트리온, '국산 1호 치료제'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신청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 백신 생산 활용 로드맵 공개

국내 대표 제약사들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기술력과 노하우를 쏟 아붓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K바이오 의 힘으로 코로나19 종식을 끌어낼 수 있 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국내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일제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또 한, 진단키트와 백신 사업도 전개하면서 진단부터 치료, 예방까지 감염병 전주기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나섰다.

◇GC녹십자, 치료제 개발에서 백신 CMO까지 맹활약=국내 대표 백신기업 GC녹십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두 각을 드러낸 제약사다. GC녹십자는 혈장 치료제 'GC5131A' 개발과 더불어 전염병 예방혁신연합(CEPI)과 5억 도즈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을 맺었다. 계열사 GC녹십자엠에스는 지금까지 총 6종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GC5131A는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고 연말 임상 2 상을 마쳤다. 조만간 식약처에 조건부 허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임상 2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1분기 내 조건부 허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은 중증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이미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에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가진 항체를 분획해 만든 것으로, 국내 환자들에게는 전면 무상공급된다.

CEPI와 계약에 따른 백신 위탁생산은 3월부터 본격화된다. GC녹십자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오창공장을 증설해 10억 도즈 규모의 생산 설비를 마련했다. 이는 일일 8시간 생산 기준으로, 2·3교대로 확장할 경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진다. 업계는 CEPI와의 CMO계약 가치만 2조8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산 1호 치료제 승인 앞둔 셀트리온 ··· 해외 진출도 속도=코로나19가 확산하 자마자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에 뛰어든 셀트리온은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허 가가 유력하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는 지난달 29일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식약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점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렉키로나주를 1월 내 승인하겠다는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렉키로나주는 임상 2상 결과 경증~중등 증 환자의 중증환자 발생률을 위약군 대비



54%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 임상적 회복을 보이는 시간은 3일 이상 단축했으며,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셀트리온 은 국내 허가와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긴 급사용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료제 개발과 동시에 셀트리온은 체외 진단기업 휴마시스와 손잡고 신속항원진 단키트를 개발했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2400억 원 규모를 현지에 공급하기로 했 으며, 렉키로나주가 승인받으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은 2조 원을 훌쩍 넘 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렉키로나주는 보수적으로 추정 해도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 할 수 있다"면서 "2분기 중 승인과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약품도 '코로나 비즈니스' 시작 ··· 대웅·종근당은 허가 신청 임박=한미약 품은 최근 열린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진단키트와 치료 제를 개발하고, DNA·mRNA 백신 생산 이 가능한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활용하겠 다는 것이 골자다.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연간 최대 10억 도 즈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 mRNA 백신의 생산기지를 찾고 있는 모더나의 CMO 계약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다. 한 미약품 관계자는 "DNA·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팬데 믹 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제약기업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진단키트 사업을 먼저 가시 화했다.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한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내달 초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 다. 치료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임 상 후보물질을 도출한 상태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1월 중 각각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및 위 절제 수

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는 '호 이스타정' (성분명 카모스타트 메실레이 트)의 임상 2b상을 마쳤다. 호이스타정은 상용화가 가시화된 다른 국산 치료제와 달 리 경구용이란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구충제 성분 '니클로사마이드' (DWRX 2003)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 행하고 있다.

종근당은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 제 '나파벨탄' (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의 러시아 임상 2상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군에 비해 약 2.9배 높은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임상 3상에서는 국내외 대규모 환자군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그동안 쌓은 R&D 노하우가 코로나19 상 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코로 나19만 특정해서 R&D를 시작하면 부담 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역량을 활용하는 전 략을 취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유혜은 기자 euna@

### 식약처 "전 품목 취소 처분"… 손발 묶인 메디톡스

# 빈틈 노리는 국내 보톡스 경쟁사들

'시장 점유율 1위' 휴젤, 분기 최대 매출 올리며 약진 대응제약·휴온스 자사제품 활용도 확대로 경쟁력↑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전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보톡스 시장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메디톡스는 2019년 기준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35%로,업계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으로 경쟁업체가 누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판매 중인 보톡스는 메디톡신 4개 용량(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과 코어톡스, 이노톡스인데 식약처가 전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서류 조작, 국가 출하 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메디 톡신 전 품목과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를 취소했는데 올해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며 이노톡스까 지 품목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회수 · 폐기 명령하는데 메디톡스는 지난 해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와 함께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소송 본 안 판결 후 30일까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은 중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셈이 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메디톡스의 보톡스 매출은 1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5%하락했다.

메디톡스 측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만큼 조만간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제조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신청과 함께 허기취소 소송을 제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 및 판매는 가능해졌지만, 식약처제재를 받은 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이어질지가 또다른 변수다. 지난해 3분기 국내보톡스 업체들은 메디톡스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몰리자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증권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는 42%를 차지한 휴젤이다. 4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인 휴 젤은 실적이 공개된 지난해 3분기까지 보 톡스 누적 매출 456억 원을 달성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성장해 코로나19 여 파에도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준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쟁업체 보톡스 제품의 품목허가 관련 이슈 영향으로 국내 점유율의 추가 확대가 이뤄졌고,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1위 지위 를 더욱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후젤의 4분기 실적도 메디톡스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나관준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휴젤의 국내 보톡스 매출은 전년 대비 31.5% 증가한 210억 원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4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내수 매출이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3, 4위는 대웅 제약(8%)과 휴온스(5%)다.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휴온스의 '리즈톡스'는 적응증확대로 시장에서 쓰임새를 넓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나보타는 남성형 탈모, 대상포진 후신경통증 감소 등의 효과를 입증했고, 리즈톡스는 양성교근비대증(사각 턱)개선에 대한 임상시험 2상을 진행 중이고, 뇌졸중 후상지근육경직 치료에 대한 국내임상 1상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국내에는 수입산을 포함해 7개사의 보톡스 제품이 출시돼 있고, 올해와 내년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유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최대 6개 제품이 신규 출시될 전망이다.

박미선 기자 only@

### 지아이이노베이션-루닛 신약개발 협업

항체 의약품 등 공동연구

신약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의료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업 루 닛과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 동연구및 학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지아이이노 베이션의 이중융합단백질 플랫폼 '지 아이스마트(GI-SMART)', 이중융합 항체 플랫폼 '스마트 탭(SMAR-TabTM)'과 루닛의 인공지능(AI) 기 반 조직 분석 시스템 '루닛 스코프 (Lunit SCOPE)'를 활용해 단백질 신 약/항체 의약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전반 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사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GI-101'과 추가 개발 중인 면역 항암 이중융합 단백질 및항제 신약의 치료 예후와 효능 평가에루닛 스코프를 적용할 계획이다. 루닛은 루닛 스코프 시스템을 통해 암조직종양침윤림프구(TIL) 분포를 3타입으로 나눈 AI 바이오마커의 유전체 데이터 연관성 분석과 면역항암제 치료 예후 연관성 분석에서 그 유효성을 입증해다

또한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차기 파이 프라인으로개발 중인 비알콜성 지방간 염(NASH) 물질에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현재 NASH의 진단, 질병단 계 및 치료반응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양사는 루닛 스코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간염의 질병단계와 치료반응을 평 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신약의 임상 시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병용요법을 위한 적합한 파트너 약물 선정을 위해 신약 발굴 시단계에 맞게 각 사의 플랫폼을 활발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빠르게 임상적 미충족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명호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는 "전 세계 신약개발 트렌드는 플랫폼 및 AI 등을 이용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면서 병용요법으로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단백질 신약/항체의약품 개발을 위한 독자적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의료 AI로 인정받고 있는 루닛의 협업으로 혁신신약개발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AI가 의약품 및 신약개발 등 환자의 치료 측면에서 활 용되면 매우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며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신약개발 플랫폼과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히 정량 화하기 힘든 조직 내 정보를 정확히 계 량하는 루닛 스코프 시스템을 통해 신 약 치료 예후와 효능을 기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동학개미' 매수여력 최대 204兆… "충동투자 자제를"

강남에 둥지를 튼 IT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최주식(30·가명) 씨는 주식 투자 를 시작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주식 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지 인들의 자랑이 끊이지 않고 들려와서다. 최 씨는 "밤낮 없다 보니 세상 물정에 어두 웠다.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냈는 데 허탈하다"며 "일찍 결혼해 '영끌'로 집 을 산 친구들은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이라도 해야 하나' 매일 안절부절못하는 이유다.

프리랜서 이솔비(36·가명)씨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의 분사를 결정하기 전인지난해 9월 2일 주당 72만8000원에 2000만 원어치 샀다. 퇴근길 버스에서 'LG화학이 전기차 최대 수혜주식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다. 투자금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마련했다. 이 씨는 "좀 더 투자할 걸

개인, 1월 들어 12.5조 순매수… "투자 과열" 우려 목소리 고객예탁금 현재 70조 안팎서 최대 160조까지 증가 전망 이주열 "코스피 과속,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어" 경고

아쉽다"며 "펀드를 깨서라도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조5000억원. 1월 들어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한(순매수) 돈이다. 20일 하루 동안에도 1조4358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3114.55까지 끌어 올렸다. 유례 없이 강했던 지난해 투자 열풍을 넘어서는 수준이라 우려와 경고음이 잇따라 나올 정 도다

동학개미의 추가 매수 여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최대 204조 원 기량 추가 투자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벼락거지 증후군' 에 따른 충동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NH투자증권은 개인들이 올해 157조~204조원 가량의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2007~2009년 펀드 열풍 시기의 상황을 놓고 추산한 예측치다. 2007~2009년은 개인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향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공모펀드 열풍이불었던 시기다.

김영환 연구원은 "2007년 한국 가계는

※ 전환청구 시작일은 2022년 기준

순저축의 80%를 주식 매수에 썼는데, 올해도 80% 정도가 쓰인다면 157조원이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019년 국내민간 부문 저축률은 18.6%인데 저축률이최고였던 때는 2016년의 22.3%다"라며 "22.3%를 대입하면 순저축액은 255조원까지 늘어, 해당 금액의 80%가 주식에 유입될 경우 204조원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고객예탁금은 최대 160조원까지 증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70 조원 안팎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유동 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추가 순매수 여력 을 35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동학개미'의 주식열풍을 두 고 경계와 기우라는 시선이 교차한다.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원은 "피같은 개인 수급은 주로 실적 전망이 높을 것으

로 보이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면 서 "개인들의 국내주식시장 유입 강도와 실적모멘텀 팩터 성과는 밸류에이션, 테크 니컬 등 다른 팩터 대비해서 상관성이 높 다"고 말했다.

반면 넋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서민· 중산층과 청년층 사이에 확산하면서 '빚 투'열풍이 불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경고 가 잇따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 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른 가격 조정 으로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 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만기이자율 0%' 전환사채 대거 등장

최근 기업 자본조달 수단으로 이자율 0% 전환사채가 대거 발행되고 있다. 저 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 을 낮추려는 기업의 목적과 전환청구권 행사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총 20개의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을 결정했다. 이중 8개 기업이 사채의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0% 전환사채 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한다. 주식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 시장에서 거래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자율 0% 전환사채는 사채 보유로 얻는 쿠폰(이자) 프리미엄이 없음을 의 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 전환 후 치익 시현이 유일한 목적인 셈이다. 기 업으로선 이자율이 0%여서 대규모 사채 발행에도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날 나인테크는 이자율 0%로 1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대상자는 NH시너지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이다. 이오플로우도 3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0%이자율을 적용했다. 발행대상자는 한양

1	월	0	l자율	0%	전환	사채	발행	フ	l업

	발행 결정일	기업명	사채 권면 총액	전환청구 시작일	발행대상자
	19일	나인테크	170억 원	1월 27일	엔에이치 시너지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19일	이오플로우	350억 원	1월 21일	한양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뉴비전오비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ĺ	18일	미코	125억 원	1월 25일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2호
	18일	일동제약	1000억 원	1월 28일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 케이비나우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
ĺ	13일	쎄트렉아이	500억 원	1월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ĺ	12일	텔레칩스	200억 원	1월 14일	삼성증권, KB증권
ĺ	6일	글로본	30억 원	1월 6일	이봉주
ĺ	5일	아나패스	20억 원	1월 7일	르네상스, 박진수

### 이달 전환사채 발행 20곳 중 8곳 '쿠폰프리미엄 0%' 발행 이자 대신 주식전환 차익 실현 전환가액도 現 주가 수준으로

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 셋대우, 뉴비전오비트 등 기관투자자 대상이다.

지난 18일에는 미코가 12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이자율 0%를, 일동제약도 같은 조건으로 10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앞서 13일에는 쎄트렉아이(500억 원), 12일 텔레칩스(200억원)6일 글로본(30억원), 5일

아나패스(20억) 등이 이자율 0%로 대 규모 전환사채 발행에 합류했다.

전환가액도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환청구기간이 시작되는 1년 후주가가 현재보다 올라야만 전환청구권 행사로이익 실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해당 기업의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 수가 증기해 오버행(대규모 매도 대기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효섭 지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의 쿠폰 수익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환사채 발 행에서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 에 프리미엄 가치를 높게 매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인아 기자 ljh@

### 기아차, 애플카 기대감에 최고가 경신

5.04% 오른 8만7600원 장중 9만9500원 터치 기아차 "결정된 바 없다"

애플의 전기차 사업을 기아차가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아차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주가는 전일대비 5.04%(4200원) 오르며 8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만 9500원까지 터치하며 10만 원 돌파도 시 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다음으로 기회를 미뤘다.

기아차의 역대 최고가는 지난 2012년 5월2일의 8만3800원으로, 전날 종가 8만3400원에 이어 이날 장 시작과 함께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해 10월만 해도 4만 원 중반대에 머물던 이 회사의 주가는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적 개선 조짐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40.38% 올랐는데 기아차는 전날 주가 상승으로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우선주 제외)에 올라섰다.

기아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하락하던 지난 해 3월 당시 시가 총액이 8조7000억 원대까지 떨어지며 시총 순위 역시 23위까 지 밀려났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를 보이 며 이날 종가 기준 시가 총액이 35조 원대 로 300% 넘게 올랐고 시총 순위 역시 한자



릿 수 진입을 코앞에 두게 됐다.

이같은 급등세는 일명 '애플카'의 생산을 기아차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 계에서는 애플카 생산기지로 기아차의 미 국 조지아 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 남 동부에 세워진 조지아공장은 261만2000㎡ 부지에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공장을 갖 추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4만 대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 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 역시 유력한 배 경으로 꼽힌다. 전기차 생산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은 필수적인 요소다.

다만 이같은 추측들은 현대차그룹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기아차 역시 '애플카 생산설'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아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내달 19일이다. 구성헌기자 carlove@

# '외화(USD) RP 자동에수 서비스' 신규 출시! SNHEIRS

#### NH證 '외화RP 자동매수' 서비스

NH투자증권은 계좌 내 달러예수금을 외화(USD) RP(환매조건부채권)로자동 매수하는 '외화RP 자동매수 서비스'를 출 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화RP 자동매수 서비스는 신청 이후 별도의 매수 주문 없이 고객 계좌에 있는 외화예수금을 자유약정형 외화RP로 자동 매수한다. 고객은 하루만 맡겨도 세전 연 0.1%의 약정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달러자산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다. 손엄지 기자 eoml@

### 한국투자, 크레디트스위스와 자산관리 협업

초부유층·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역량 강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관리 선두 금융사인 크레디트 스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고 액자산가를 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자문 및 글로벌 투자상품 제공을 위한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사는 △ 초부유층 및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역량 강화 △차별화된 글로벌 투자상품 공급 확대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마 케팅 협력방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 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위해 강남파이낸 스센터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GWM센 터를 전용지점으로 운영하며 양사간 협력 관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홍콩, 싱가폴 등지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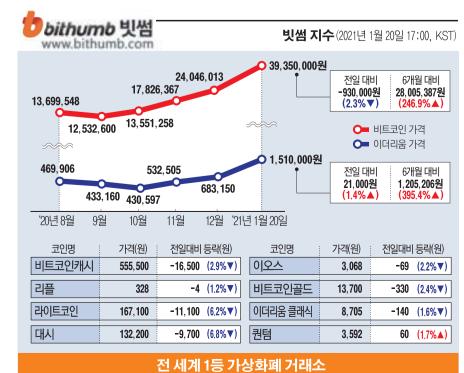


정일문(오른쪽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천 기(왼쪽 두 번째) 크레디트스위스 한국 대표, 김성 환(맨 왼쪽)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이 업무협약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 왔다.

정일문 사장은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와 의 이번 협약으로 최고 수준의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견고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



# "너무 올랐나"…한풀 꺾인 서울 전세시장

### 봄 이사철 앞두고 숨고르기

작년 10월 바닥 찍은 전세 물건 을 들어 2000건 가까이 늘어 월세전환 주춤…전세비중 69% 거침없던 전셋값 오름폭도 꺾여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셋값 오름폭은 완만해졌고 매물은 늘어났다. 그러나 예년과 비교하면 전세난이 재발 혹은 더 악화할 가능성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8일 기준 1만9122건이다. 한 달 전(1만5421건)보다 24.6%늘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지난해 10월 초바닥(8313건)을찍은 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들어서만 매물이 2000건 가까이 늘었다.

매물 증가는 서울 자치구별로 봐도 드러 난다. 서울 25개 구중 용산구(-16.2%)를



제외한 나머지 24곳에서 전세 매물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마포구와 광진구에서 아파트 전세 물건이 각각 네 배, 두배 넘게 증가했다.

전세 물건이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化) 현상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 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9110건 중 전세 비중은 69.3%(6312건)로 평년 수준을 되찾았다. 이달엔 전세 비중이 18일 기준 71.2%로 더 올라갔다. 전세 비중이 사상 최저치(60.4%)로 떨어지면서 '전세 소멸론'이나왔던 지난해 11월과는 다른 흐름이다.

지난 연말 거세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역시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전국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12월셋째 주 0.30%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3주연속 오름폭이 줄어 지난주엔 0.25%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 11월 말 0.15%까지 오른 후 지난주엔 0.13%로 낮아졌다.

이 같은 전세시장 변화는 가을 이사철이 란 고비를 우선 넘긴 덕분이다. 이사 수요가 줄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 상승도 성수 기처럼 가파르지는 않다는 뜻이다. 최근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 산과 한파 · 폭설도 역설적으로 이사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 석연구원은 "겨울이 계절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인 데다 코로나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줄면서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도 완만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시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사 성수기가 시작되면 지난 여름 · 가을 벌어졌던 전세난이 되풀이될 수 있다. 가장 큰 복병은 역시 전세 공급이다. 전세 물건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아파트 전세 물건이 5만 건을 넘었던 것과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도 채 안 된다. 지난

해 1분기 전세 거래 건수(3만5426건)에도 아직 못 미친다. 여기에 지난 7월 주택 임대 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에겐 계약 갱신이라는 비빌 언덕이 생겼지만 신규계약자는 전셋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속도가 둔화하기 했지만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5% 전 · 월세증액상한제'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미리 전셋 값을 높이 부르고 있어서다. 여 연구원은 "날이 풀리고 신학년 신학기 이사 수요가본격화하면 전셋값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전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는 전세 물 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설 이전 내놓을 계 획이다. 박종화기자 pbell@

# '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 '주택난 해결' 앞세워 민심 공략 나서 현실성 떨어져 집값불안 유발 우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연일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 · 전셋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는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로 짧고 공약현실성도 떨어져 자칫 '속 빈 강정'에 그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주요 후보자들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주택난 해결'을 꺼내 들었다. 다만 여야 후보자 간 접근법은 다르다. 야당 후보자들은 민간 분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서울 내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현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부동산 공략

<u> ハラハら エラピバ 十二 十らじ らっ</u>							
다 더불어민주당	다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국민의힘	🚣 국민의당			
우상호	박영선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 강변북로 · 올림픽대로 덮어 택지 조성 -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 역세권 고밀개발	*미발표	<ul><li>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li><li>분양가상한제 폐지</li></ul>	<ul> <li>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li> <li>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li> </ul>	- 청년임대주택 10만 기구 등 5년간 74만 기구 공급 -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주택 공급을 앞세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후 보들은 한목소리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 화를 약속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선 언 후 지난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재건축 을 추진 중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 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 다. 같은 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성 동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찾아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 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을 공약

#### 했다

서울시장 선거 '삼수'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서울 내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공급 정책으로는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와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 만 가구' 등을 발표했다. 이 밖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우 의원은 공 공임대주택 16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 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은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만 허용하고, 이익 일부를 공 공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 계획 도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장 여야 서울시장 출마자 모두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앞다퉈 공약 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 산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은 없다"고 입을 모 았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3개월로 짧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으로 채워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 원은 "부동산 공약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 장 권한 밖이고 또 민감한 이슈는 서울시 와 정부가 합의해야 한다"며 "실현 불가능 한 포퓰리즘 공약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집값 불안을 유발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법인 주택 지난달 5만채 매도 '패닉바잉' 개인 92% 사들여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주택 매각을 서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매물을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당시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정부가 법인 주택 거래와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 매물이 쏟아진 바 있다.

법인들이 작년 말에 주택 매도에 대거나셨던 건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양도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면서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없어졌다"며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말까지 매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고,이어 부산(4788건),서울(4275건),경남(4001건), 경북(3281건),충남(3206건),대구(2524건),전북(2181건),광주(1961건)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법인이 시장에 던진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소화하면서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다. 4.4%는 다른 법인,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정부는 세제를 강화하면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서 집값이 하락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패닉 바잉' (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사들이면서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효기자 sorahosi@

'시세차익 공유'에도 아랑곳없이…"입지·브랜드가 중요"

###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흥행

#### 평균 경쟁률 58.1대 1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자이 더 시 티'에서 민간 분양아파트에 이어 공공 분양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도 청약 흥 행에 성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8 ~19일 진행된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회 망타운 입주자 모집에선 청약경쟁률이 평균 58.1대까지 올랐다. 293가구를 분 양했는데 1만7026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난해 경기도 평균 청약경쟁률 (30.2대 1)보다도 높다. 웬만한 민간 아파트보다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142가 구를 분양한 전용면적 59㎡형이다. 1만 839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76.3대 1까지 올랐다. 전용 49㎡형과 55㎡ B형도 각각 경쟁률 47.0대 1, 43.5대 1일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이 가 장 낮은 전용 55㎡ A형조차 39.1대 1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그간 청약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미분양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주 입주지를 모집한 수원 당수 신혼희망타운과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8대 1, 1.3대 1이었다. 아산 탕정 신혼희망타운에선 340가구를 분양했는데 청약 신청자는 232명(평균 경쟁률 0.6대 1)에 그쳤다.

신혼희망타운이 인기가 적었던 것은 높은 진·출입 장벽 때문으로 파악된다. 소득(맞벌이 기준 722만 1478원)과 자 산(3억300만 원) 상한선이 엄격한데다 분양 아파트라도 처분이 어렵기 때문이 다. 분양가 3억3000만 원 이상 신혼희 망타운을 공급받으려면 전용 모기지(주 택담보대출)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출액과 대출 기간, 자녀수에 따라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의무 거주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도 각각 최장 5년, 10년씩 적용된다.

위례 자이 더 시티는 입지와 이름값으로 이 같은 악조건을 상쇄했다. 이 단지는 위례신도시 주거 지역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경전철이 지나는 위례중앙역이 들어선다. 지난주 위례 자이 더 시티민간 분양아파트가 평균 경쟁률 617.6대 1로 수도권 청약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세운 것도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기에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중처음으로 민간 건설사브랜드를 붙였다.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흥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최근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시세 차익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어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는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각 개인에게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이 그런 개념이다.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에서 보듯 공공자가주택이 성공하려면 입지 등에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게 중요 하다. 박종화 기자 pbell@

# '징역 40년' 조주빈에 검찰,15년 추가 구형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가중처벌해야"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 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 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 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 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 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 로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 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 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 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 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조주빈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 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며 "성 착취물 제 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 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 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 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 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존 사건 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공판을 다음 달 4 일 오전 10시에 연다.

한편 조 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 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 을, 강 씨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았 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다수의 피 해자를 유인•협박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모방범행 등 다른 추가 피해에 노 출되게 했다"고 질타했다.

김<del>종용</del> 기자 deep@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정진웅 "한동훈 폭행 의도 없었다… 중심 잃고 넘어진 것"

독직폭행 혐의 무죄 주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 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 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

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 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 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 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 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 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때에 적용되는 혐의 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 는 기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 '따릉이' 작년 2300만 건 이용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자전거 '따름이' 이용이 건수가 23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따름이 총 대여 건수는 2370만 5000 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첫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2~4월 이용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

다. 3월엔 74.4%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 했다.

회원 수도 크게 늘어 누적 가입자 수는 278만6000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4명 중 1명꼴로 따름이 회원이 됐다. 작년 신 규 가입자는 역대 가장 많은 120만7000 명이다. 회원가입은 대다수가 2030세대 (64.7%)로 청년층이 많았고, 이용빈도 는 5060세대가 높았다.

홍인석 기자 mystic@

###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국가배상 청구

#### "문제 유출… 재시험 하라" 요구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 다.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응시생들 사이에 서는 일부나 전면 재시험, 점수 조정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응시생 측 대리를 맡은 방효경 변호사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가배상 청 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무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배상 청구뿐인 것 같아 오늘 중 공지해 당사자 를 모집한 다음 2월 초에 소송 제기를 목표 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국가 배상 소송에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공법 문제 유출 의혹을 지 목하고 있다. 시험에 출제된 한 공법 기록 형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모 의시험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미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수가 변 호사 시험 문제은행에서 변형한 자료로 수 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시 험 문제는 사전 수집된 문제은행을 토대로 출제된다. 이번 시험은 2019년도 문제은행 에서 출제됐는데 해당 교수는 같은 연도 문 제은행 출제자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 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 고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시험 주관 부서를 이관하라면서 법무부를 압박 했다. 응시자모임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 로 변호사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dy@

### 아빠가 때려도 엄마는 지켜보기만… 방조가 학대 키운다

### 아동권을 지키자 🚯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 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 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 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 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 다고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 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범인(정범) 의 형보다 감경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정범의 형에서 절반을 줄이는 '방조 감 경'을하고 있다.

20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건 중 8건은 집에서 발생 부모가 신고한 사건 18%뿐

"의심시 적극 개입할 수 있게 공공 권한 더 강화해야"

으로 접수된 사건은 918건으로 나타났 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보다 훈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보호사건은 4153건이 접수됐다.

◇엄마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생후 2 개월의 수철(가명) 군은 아빠의 반복적 인 학대로 오른쪽 팔과 양쪽 다리가 골절 됐다. 아빠는 TV 리모컨으로 수철 군의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내려졌다.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얼굴을 때렸다. 수철 군을 안고 있던 상태로 바닥에 떨어뜨리 기도 했다.

엄마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수철 군을 향한 아빠의 학대를 전부 목격했다. 수철 군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린 것을 보고



도 방치했다.

재판부는 아빠에게 징역 4년을, 엄마 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부모가 가 해자인 경우는 80%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부모 중 한 명은 신고해야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접수 된 아동학대 신고 3만3532건 가운데 부

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건은 6089건 (18.2%)에 불과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학대 방조 범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아 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집안에서 일어나 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증거를 찾기 힘 들다"고 지적했다. 집이라는 폐쇄된 공 간에서 주로 행해지는 범죄인 만큼 부모 중 한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적 허점 보완… 예방에 '방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방조죄 처벌 강화 와 함께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전에 아동학대 위험성 높은 가정에 지 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는 "아동학대처벌특레법에 저촉되는 사 건은 전체 20% 정도"라며 "나머지 80% 는 아동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발 빠르게 개입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된 다. 박 교수는 "경찰이 아니면 문도 안 열 어주는 일이 많다"며 "전담 공무원 등 공 공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경찰이 아무 일 아니라고 하면 본 인(가해 부모)들은 학대가 아니라고 생 각한다"며 "신고와 동시에 상담을 의무화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종용 기자 deep@

홍인석 기자 mystic@





미국 국방성 인정 극강의 내구성! 시선 강탈 밀리터리 디자인! 건/습식 면도 완벽지원 IPX7 완전방수! 정교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터프한 쉐이빙 퍼포먼스를 느껴보세요.



4중 커팅 블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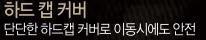
독립 4중 면도날이 피부 굴곡을 따라 완전 밀착 쉐이빙



액티브 캐치 트리머 놓치는 수염이 없도록 누워있는 수염을 잡아세워 면도



60도 예각 에칭 블레이드 내구성과 절삭력을 모두 갖춘 최적의 면도날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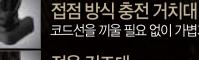
항균 고무 그립

RSV(리저브) 기능

젖은 손으로 사용시 그립감 향상과 미끄러짐 방지



최초 방전시 다시 전원을 켜면 약 3분간 사용가능



코드선을 끼울 필요 없이 가볍게 충전기에 올려 충전







500명 선착순 증정!

# 진짜 남자를 위한

이즈미 밀리터리 쉐이버 (IKS-6100) 구매고객께 이즈미 코털제거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NB-12B / 선착순 500명)

소비자권장가 **23,900**원

※위 행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쉐이버 (IKS-6100) 219,900원▶198,000원 (카드3개월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람비스토어 및 | 주문전화 080 • 607 • 7700

# "비트코인·공매도, 투자자 보호 측면서 접근해야"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김병욱 의원

###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만 있어 산업발전 포괄하기에는 미흡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해선 안돼 … '공정성' 담보되냐가 문제

"언제나 공부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나는 경제 활동을 법에 담기 위해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 다."

풍부한 실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 당 의원(성남시분당구을)은 이투데이와 의 인터뷰에서 전문가적 시선으로 자본시 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초선 당시 '증권 맨' 출신으로 주목받은 그는 재선에 성공 한 후 더욱 여유 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자본 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코스피 3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을 두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미래에 국민이 갖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가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돈으로 경제활동을 표현한다"며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볼 때 앞으로 경제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승 폭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 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인한 과잉 유동성 유입은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선 이 부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화두가 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해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무조건 과거 시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는 참 난감하다. 법이란 게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한다"며 "법 테두리에 시장을 가둘 순 없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계속 멀리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블로체인협회와 함께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하는 업권법(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법이라 불리는 특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즘은 2017년, 2018년 암호화폐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규제법만 있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호보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도 암호화폐는 거래돼 통용되고 있고 나중 에는 디지털 화폐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의 경제활동이 벌어 지고 있어 이를 리스크(위험요소)가 있다 는 이유만으로 못 본 척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공매도는 증권 시장을 개설한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를 논의하는 시점은 지났다"면서도 "다만 한국의 경우는 공정성 측면에서 공매도를 들여다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순기능만을 근거로 국내 주식 시장에 공매도를 적용하는 것과는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한쪽 측면만 보고주장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재개 한시적 금지 이후 최근 9개월간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법 개정을 했고 금융위원회에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 개정 후 평가를 통해공매도를 재개할 만큼 공정한지 따져봐야한다. 아직도 부족하다면 2~3개월 더 여유를 갖고 공매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정동·숭실대 허완수 교수 공학한림원 일진상 수상자로 선정 해동상엔 송동주 명예교수·박근태 기자





한국공학한림원은 제17회 한국공학한 림원 일진상 수상자로 이정동〈왼쪽 사진〉 서울대 교수와 허완수〈오른쪽〉 숭실대 교 수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옥스퍼드 저널인 '과학과 공 공정책' (Science and Public Policy)의 편집자로서 우리나라 기술경영, 기술정책 분야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기술정책 기여' 부문 일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 교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숭실대산학융합 R&D 지원센터'를 설립, 산업계의 애로 기술 해결에 중추적인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산학협력 증진' 부문 일진상을 받는다.

공학한림원은 또 해동상 수상자로 송동 주 영남대 명예교수와 박근태 동아사이언 스 기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상금 2500만 원이 수여되며, 시 상식은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다. 연합뉴스

# 대한상의 회장 12년간 재임 '최장수 회장'

### 양영·수당·하서학술재단 통해 인재양성·학문발전에도 열정

### 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 별세

화학소재·의학바이오 사업 진출 포트폴리오 넓혀 성장동력 마련 한일경제협회·농구협회장도 맡아

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이 20일 노환 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고 김상하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 6녀 중 5남으 로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1949년 졸업하고 삼양사에 입 사했다. 입사 후 형님인 김상홍 명예회장 과 함께 정도경영과 중용을 실천해 오늘의 삼양을 만들었다.

고인은 1950~1960년대에 삼양사의 제당, 화섬 사업 진출을 위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울산 제당 공장, 전주 폴리에스테



르 공장의 건설 현장을 이끌었 다. 삼양사 사 장, 회장을 역 임하면서 폴리 에스테르 섬유 원료인 TPA, 엔지니어링 플 라스틱, 전분

및 전분당 사업에 진출해 식품 및 화학 소재로 삼양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1996년 그룹 회장 취임을 전후해서는 패키징, 의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해 삼양의미래 성장 동력도 준비했다.

고인은 경영에 매진하는 한편으로 2010 년 양영재단, 수당재단, 하서학술재단 이 사장으로 취임해 인재 육성과 학문 발전에 도 이바지했다. 투병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매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삼양그룹 본사 로 출근해 재단 활동을 직접 챙기며 장학 사업과 학문 발전에 애정을 쏟았다.

고인은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농구협회 장,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 장, 한일경제협회장, 환경보전협회장을 비롯해 최대 100여 개 단체를 이끌며 경제, 체육, 환경,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발전에 헌신했다. 1988년 취임한 대한상의 회장은 12년간 재임해 최장수 회장으로 기록됐으며, 대한농구협회장도 1985년부터 12년간 맡아한국 농구의 중흥을 이끌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1975), 국민훈장 무궁화장(2003) 수훈을 비롯, 자랑스러운 전북인상(2008)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박상례 여사와 아들 원 (삼양사 부회장) 씨, 정(삼양패키징 부회 장) 씨 등 2남이 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 원 장례식장 20호, 발인은 22일 08시다.

김혜지 기자 heyji@

### '공화당 1인자' 매코널, 트럼프 버리나

#### "폭도들에게 거짓말 주입"…상원 탄핵 가능성 높아져

미국 공화당 '1인자' 미치매코널〈사진〉상원 원내대표가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게 있다

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침묵해오 전 매코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탄핵 가능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폭도들 에게 거짓말이 주입됐다"며 "대통령과 다 른 유력 인사들에게 자극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는 의회가 해야 하는 절차를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적인 범죄자들로 부터 의사당을 되찾았다"며 "하루도 미국 법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걸 폭도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코널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의 취임식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 질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든든한 우군이 었던 공화당 1인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 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 공화당이 탄 핵 찬성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다. 앞서 매코널 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 해 아직 정한 게 없다. 상원에 탄핵안이 도 착하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주장으로 군중을 선동하고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 동'혐의를 받고 있다. 상원에서 탄핵이 통 과되기 위해선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탄핵 찬성표 를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이 후에도 탄핵될 수 있다. 최혜림 기자 rog@

#### 'POSCO' 영문명 만든 정명식 前 포스코 회장 별세

정명식 전(前) 포스코 회장이 19일 향 년 9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故) 정명식 전 포스코 회장은 1931 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5년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미국 미네 소타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 다. 1970년 2월 포스코에 입사해 토건부 장, 건설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거쳐 1993년 포스코 3대 회장으로 취임했 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사장으로 지낼 당시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만난 것이 일생을 포항제철소 와 광양제철소 건설에 바친 계기가 되었 다. 특히 1970년 포항제철소 '열연비상' 때 '전사동원체제'로 공기를 만회했으며, 'POSCO' 영문명 사용과 제철소 조업에 서 출하까지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 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68년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 사장, 1993년 한국철강협회장, 1995 년 포스텍 이사장을 역 임했다. 또한, 1976년 동탑산업훈장, 1981년 은탑산업훈장, 1989년

체육훈장 백마장, 1990년 금탑산업훈장, 1992년 백상체육대상과 대한민국과학기 술상 등의 상훈을 받았다.

장례는 포스코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빈 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 인은 22일 9시다. 장지는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공원묘원이다. 이주혜기자 winjh@

#### ▮부음

▲장종환 씨 별세, 장하연(서울경찰청 장) 씨 부친상 = 20일, 전남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2일 오전 8 시,061-262-6666

#### ▮인사

#### 이베이코리아 신임 사장에 전항일

이베이코리아는 변광 윤 사장 후임으로 현재 이베이재팬사업을이끌 고 있는 전항일(50·사 진) 사장을 선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항일 신임 사장은 2003년 이베이코리 아에 입사, 2016년 이베이코리아 영업본 부장을 거쳐 2018년 이베이재팬 대표로 취임, 이베이재팬의 실적을 단 2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시키는 높은 성과를 낸 바 있다. 남주현기자 jooh@

-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상 임이사) 김우곤 △사업본부장 윤진영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 부장 △지능형인프라본부장 최대규 △지 능데이터본부장 고윤석 △글로벌협력본부

장 이재호 ◇단장 △클라우드기술지원단 장 김은주 △빅데이터추진단장 이용진

◆KB국민은행 ◇지역본부장 승진 △강 서4(목동서로) 강미정 △남부·경기중앙7 (평촌범계) 강중호 △강동1(잠실중앙) 권 용찬 △경인5(부평) 김길영 △강동6(선릉 역) 김대중 △부산·울산·경남7(부전동) 김 동진 △강서3(목동파리공원) 김동호 △강 남5(양재역) 김봉수△강서2(화곡동) 김수 찬 △대구·경북7(구미공단) 김종민 △경기 남8(화성향남) 김진삼 △남부·경기중앙2 (기산디지털) 김춘태 △강남4(역삼동) 김 한순 △부산·울산·경남12(사상) 김해동 △ 남부·경기중앙6(여의도) 김형상 △경기남1 (성남) 김효종 △남부・경기중앙13(정자 동) 노인기 △대구·경북3(내당동) 박병곤 △강남1(방배중앙) 박종률 △경기남10(평 택중앙) 박종상 △강서7(검단산업단지) 박 태성 △강동4(길동) 배진호 △경인8(부 천) 사혜난 △대구·경북8(포항) 손종목 △ 남부·경기중앙10(시화공단) 송승익 △충청 9(충주) 신경환 △중앙4(충무로역) 신재섭

△경기남2(판교) 양정필 △대구·경북9(안 동) 오동환 △충청5(당진) 윤석준 △충청8 (서청주) 이강우 △대구·경북2(상인역) 이 경률 △동부8(송우) 이경숙 △호남8(군 산) 이근배 △경기남4(미금역) 이미영 △ 중부6(파주) 이영민 △경인2(가좌공단) 이 재현 △호남7(전주) 이진순 △강서8(김 포) 이항 △충청4(대전은행동) 장필곤 △ 충청1(유성)정동교△강남9(언주로)조현 규 △동부1(장한평역) 진익철 △강남3(서 초동) 천무중 △강남6(신사동) 최명관 △ 남부·경기중앙12(선부동) 최형철 △강서5 (구로동) 홍승희 ◇지역본부장 전보 △호남 2(첨단) 김용배 △호남4(하당) 김환종 △ 부산·울산·경남8(범일동) 박기환 △남부·경 기중앙1(철산역) 박용진 △강서1(우장산 역) 박인선 △부산·울산·경남11(김해) 송 정섭 △강서6(양평동) 전홍철 △남부・경기 중앙11(안산) 조일권 △부산·울산·경남1 (온천동) 편득준 △동부2(청량리) 황시연

◆브레인자산운용◇승진△자산운용본 부 본부장·CIO(전무이사) 김태준

#### 지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수탁자 책임활동은 '책임투자'와 '주 주권 행사'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데, 기존의 주주활동 중심에서 이제는 책임투자활동도 중추적인 축 활동으 로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 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 을 펼치게 된다. 더 나아가 책임투자 차원에서 '사회와 환경 관련 중점관리 사안'도 설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 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크게 기업과 투자자 두 가지 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업 차원에서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 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분기보고서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공시항 목을 40%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이다. 대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경영의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확대하겠다는 로 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기업 정보들을 2025년까 지 '자율공시 확대', 2025~2030년까지 '일 정 규모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해 2030년 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기간이 다소 길어 아쉬움은 남지만, 필자같이 약 1000 개 기업의 정보와 뉴스들을 수집해 ESG

사회·환경 등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해서 는 대륙마다 접근법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평가와 자문을 하는 사람의 처지에선 가뭄

에 단비같이 고마운 조치이다.

근거법이 민법이냐 상법(회사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통 합해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증 권거래위원회(SEC)을 중심으로 기존의 재무 중심의 연차보고서 '10-K' 이외 지 속가능성과 관련된 '레귤레이션 S-K'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반면 한국은 기존 사업보고서 체계를 효율화하고 가급 적 기업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단계 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 다처럼 환경제재 정보 등 '핵심 페널티 정 보'만큼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측면에서는 ESG 책임투자 활성 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 평 가 및 개정'을 검토하고,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 장법상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등 관리 감 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ESG 관련 수 탁자 책임활동은 해외 연기금과 자산운용 사의 경우 자체 기준과 관리 평기체계를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관투자자는 비 용, 전문성, 행정상의 이슈로 주로 당 연구 소와 같은 의결권 및 ESG 자문회사를 통 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이 둘은 논 리상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 의 역할은 단순 정보 제공자에서 행동촉진 자와 트렌드세터까지 다양해진다

발표 취지대로 책임투자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뇌물, 공장 폭발, 갑질 사례, 폐수 유출 등 기업의 각종 사건 사고를 투자자가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 침'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 저, 수탁자 책임활동은 '책임투자'와 '주주 권 행사'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기존 의 주주활동 중심에서 이제는 책임투자활 동도 중추적인 축 활동으로 더욱 강화하고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투자한 기업에 불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극히 이 례적·사후적으로 '소송제기'를 통해 권리 보전을 주장했다. 현재는 매년 주주총회에 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상시로도 주주로 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표명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침상 정해진 '중점관리 사안 주주활동'을 행사하

게 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회적으 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을 펼치게 된 다. 더 나아가 책임투자 차원에서 '사회와 환경 관련 중점관리 사안'도 설정해 연간 핵심 과제로서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투자활동은 주식뿐 아니 라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 기타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해서 ESG를 고 려'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책임투자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추구해야 할 과제를 도출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마다 과연 어떤 철 학을 바탕으로, 어떤 우선 순위에 따라 중 점관리 사안을 정하고, 또 각자 어떻게 효 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먼 길을 떠나려면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다. 스튜 어드십 코드 2.0을 활짝 열어보려는 지금, 이러한 과제들은 코드 3.0을 지향하며 고민 해야 할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이상의 포 인트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공시 개편안의 실행과 실효성을 자세히 지켜보자. 양자역 학이 증명하듯, 바라보면 세상이 변한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

### CEO 칼럼

유희숙 1492피앤씨애드 대표



첫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 람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처음엔 실패했 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 법은 뭘까.

처음부터 바로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들 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한 사람 들이다. 즉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유통과 마케팅이 받쳐주지 않아서 시장에 진입조 차 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것이 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개발될 수 있 는 단계별 자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기 술은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 사업에 실패한 후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다. 첫 사 업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기업가들을 보 면, 자신의 실패 이유를 절실히 깨닫고 또 한 그 실패의 요인을 보완한 사람들이다.

6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과 재도전 기 업가들을 만났다. 결국 성공하고야마는 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

집 앞 골목에 카페 두 곳이 있다. 2년 전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다. 처음에 커피만

팔던 A 카페는 빵, 크로플에 이어 케이크

까지 점차 메뉴를 늘렸다. B 카페는 실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뒤 두 카페의 대응도 달

랐다. A 카페는 곧바로 배달을 시작했고,

B는 커피 가격을 할인했다. 코로나19가 1

년 가까이 지속한 지금, 둘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A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와 포

장 손님이 꾸준히 오가지만, B는 영업하지

기업도 카페 같은 개인사업자와 다르지

않다. 어떤 기업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사

전에 준비한다. 고객을 연구하고 돈을 들

'SNS 감성'으로 꾸미는 데 집중했다.

### 창업의 뇌를 깨우는 습관

업가들의 성공 요인은 무척 다양한 반면, 연속된 실패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 람들을 보면 비교적 명확한 공통분모가 있 다는 걸 발견했다.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시장의 함정'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시장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창업 이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보통 겨우 시장에 대해 알게 될 때쯤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 체득하게 된 시장에 대한 감각은 사업의 성공 확률 을 훨씬 더 높여주게 되지만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한 사람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 를 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경험이 사장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첫 창업에서부터 시장의 감각, 경영의 감각, 성공의 감각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출발하 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나 이외의 타인과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방 증이기도 하다. 준비하는 아이템에 대해

문에 머리로 말하고 있는 자신보다 온 몸 으로 느끼고 있는 상대방이 훨씬 더 현명 하게 판단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 상대방 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상상해 볼 줄도 알아야 이 세상이 어 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상력도 더 키울 수가 있는데 말이다. 여기서 상대방이란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고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둔감 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다. 먼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는 데 따른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데 인 색하다. 즉 피벗(Pivot)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피벗이란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하 기 위한 구조화된 노선 교정을 말하는 것 으로, 제품과 전략에 대한 불확실한 초기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빠르게 바꾸는 것

두 번째로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

만의 성찰의 시간을 잘 갖지 않는다는 것 이다. 감사하는 데 둔감하고 미안해하는 데 인색하다. 하루 7~10분의 명상이 불러 오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인간의 뇌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명상하지 않은 뇌와 명상한 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강조한다.

뇌의 능력을 일깨우는 또 다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세 상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가장 빠른 간접 경험의 통로다.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은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 에 대해 예측하게 하는 세 번째 공통분모 가 된다.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감사한 것에 대해 생 각해 보고 미안했던 점을 기록해 보는 시 간부터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가. 체험 경 제에서 감정 경제로 바뀌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의 기본적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에는 기업이 운 좋

게, 어쩌다 보니 수익을 냈다는 인식이 깔

려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덕에

돈을 벌었으니 기부하라는 논리다. 하지

만,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흑자를 낸 기업 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상존한다. 각자의

준비와 대응이 달라서다. 코로나19로 비

어가는 곳간을 채우는 방법이 왜 '관제 기

부'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회안전망을

# 이투데이, 말투데이

#### ☆ 루이16세 명언

"짐은 그대들을 용서한다. 이 이상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일이 프랑스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루이 15세의 둘째 손자. 국민에게 사랑받 는 왕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유약하고 소심 한 성격의 그가 심각한 재정문제를 극복하 지 못해 대혁명이 발발했다. 탈출하려다 실 패해 왕 중에 유일하게 재판받고 처형당했 다. 단두대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는 오늘 숨을 거두었다. 1754~1793.

### ☆ 고사성어 / 천려일실(千慮─失)

천 가지 생각 중의 한 가지 실수라는 말 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한 번쯤은 실수가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사기(史記) 회음 후열전편(淮陰侯列傳篇)이 원전. 한신 (韓信)이조(趙)나라 20만 대군을 괴멸시 키고 사로잡은 모사 이좌거(李左車)에게 연(燕)과제(齊)나라 공략책을 묻자 사양 하던 그가 한 말.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 도천 번 생각에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 고[智者千慮必有一失],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여 한 번은 맞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 시사상식 / 프레너미(Frienemy)

friend와 enemy의 합성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한편으로 경쟁하는 관계를 뜻한 다. 사랑과 미움을 오가며 유지되는 친구 관계를 '프레너미 현상'이라 부른다.

###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가난

艱(어려울간)과 難(어려울난)의 한자 어에서 왔다. 이화작용(異化作用)에 의해 이렇게 변음됐다.

#### ☆ 유머 / 선물

교회 출입문을 고친 목수에게 목사가 가 죽지갑을 선물로 주면서 약소하지만 감사 의 뜻으로 드린다고 하자 그가 화를 냈다. "지갑이 아니라 적어도 수리비 10만 원은 주셔야죠."

목사는 선물로 주려던 그 지갑에 들어있 던 30만 원 중 10만 원만 얼른 꺼내 주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 기자수첩

유창욱 산업부/woogi@

### 돈 벌기가 쉽나요

여 제품도 개발한다. 그렇지 않고 현행 유 지에 집중하는 곳도 있다. 전자처럼 준비 된 기업은 변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 만, 후자는 침체를 못 면한다.

코로나19 시국에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 에 기금을 걷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주 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문재인 대

(02)799-2669

(02)799-2648

(02)799-2646

통령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다. 선거 앞두고 표 잃기 좋은 '증세'를 언 이른바 '이익공유제'다. 자발적 참여라지만 등 떠밀리는 모양새 급할 정치인이 없다는 건 알지만, 노력의 대가를 그저 '운'으로 깎아내리는 사회 분 가 될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 위기는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이 세상에 치권과 지지세력이 특정 산업군과 회사 이 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데 버텨낼 기업은 거저 얻은 수익이란 없다. 어디 돈 벌기가 쉽던가?

주필 추창근

'이투데이

않는 날이 늘었다.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v.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논설실

자본시장부

IT중소기업부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 정치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12 (02)799-2637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math>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제경제부 (02)799-6741 (02)799-2644 사진영상팀 (02)799-6745

편집국장 김종훈

대표전화 팩스 구독·배달

주소

여의대방로 62길 1 (02)799-2600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06900 서울시 동작구

#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 늘은 새해가 열리자마자 '역경을 헤치고 별을향하여(per ardua ad astra)' 출발 하는 분들께 마음의 편지로 고마움을 대 신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를 괴롭혔 던 전염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그 대들은 지금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탔 거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섭게 추운 한 국의 겨울날에 미국의 동남부나 중동의 사막에 가는 일은 예년 같으면 남들의 부 러움을 살 만했지요. 아무리 업무의 부담 이 있어도 날씨를 비롯한 다른 여건이 여 러분에게 일할 맛을 느끼게 해줬을 테니 까요. 그러나 2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40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국이나, 아 주 엄격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동 국가에 출장을 가는 것이 마냥 탐탁하지 만은 않았을 겁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지난 1년 우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외 고객과의 직접 교류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방역 여건 아래에서 더 적극적인 영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요. 그리고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하는 부서장들이 해외 영업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을 때 나는 차마 그대들과 눈을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50대 초, 중반의나이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절정에 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대들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며 3만 달러 소득의 나라에서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 조석의 **遠見明察** (원건명철)

현대일렉트릭 사장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많은 사람이 첨단과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멋지게 구상합니다. 거침없이 피버팅(Pivoting)하여 회사의 핵심 역량을 발굴하고 사업 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언택트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환경친화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새로움을 얘기할 때누군가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지켜야합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균형'은 그렇게해야만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경제는 아직도 제조업과 수출이 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가 총생산 규모만 큼을 수출, 수입하는 100% 무역 의존형 경제입니다. 비록 수출의 성과가 국민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수출이 부진하면 경제 성장도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출을통해 국익을 창출하려면 품질 좋고 값싼물건을 만들어서 구매자의 마음에 들도록잘 설명하고 알려야 합니다. 팬데믹의 긴터널도 곧 출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출구

가 나타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 안에서 터널 밖의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대들은 그런 일을 위해 역경을 뚫고 고객을 찾아갑니다. 공항에 내리면 일정 기간 격리를 하겠죠. 국가가 격리를 강제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스스로 격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고객이 그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신발 끈을 동여매고 떠났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수출 전사 여러분! 언 제부터인가 치열함이 사라지는 사회 분위 기를 느끼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 려하며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소중한 가치 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거두는 일도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는 치열한 경쟁의 정글이고 여기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당신들과 같은 전사가 필요 합니다. 20세기에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경쟁하던 기업인들을 우리는 수출 전사라 불렀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 정신 이 필요합니다. 지금 길을 떠나는 그대들 을 나는 수출 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전 쟁의 포화는 아니더라도 전염병이라는 역 경(ardua)을 뚫고, 세계 무역 전쟁의 심 장이라는 별(astra)을 향해 달려가는 용 감한 우리 가족입니다.

그대들은 성공의 전리품을 꼭 가져오기를 갈망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귀환만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대들의 건투를 빕니다.

### 사 설

###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 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가 있는 기업을 우대하고, 이익을 낸 기업들에 사회적 발전기금을출연토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권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상황에서 금융업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자율을 낮추거나 이자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개인신용등급을 낮춰 이자부담을높이지 못하게 하고, 기압류를 멈추는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강제화할수밖에 없다. 기업과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해도, 기업에 또 막대한 준조세부담을 지우고 은행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반(反)시장 발상이다.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경제계는 △코로나 수혜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배임 논란과 소송 및 사법적 처벌 가능성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기 업성장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절박한 현실로 직면한 리스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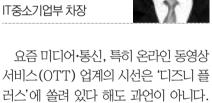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이자율이라면 부담이 되지만, 은행 이익을 소상공인들과 나눠야 한다는 식의압박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이미 은행들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잠재적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상황이다.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하면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더 큰 문제를일으킨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IT(정보기술)·플랫폼 업계 등이 돈 을 번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 와 시장수요 변화, 비대면(非對面) 경제에 따른 온라인 가속화, 이에 대 응한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 경쟁력 으로 일궈낸 성과다. 그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한다는 건, 상생의 명분 을 내세운다 해도 시장경제와 자본주 의 질서에 거꾸로 가는 일이다.

여당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원하는 것은 경영 활력과 투자 의욕을 죽이는 규제의 철폐다. 수없는 규제의 올가미로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돈을 토해내라고 다그친다. 투자를 꺾고 성장력을 훼손해일자리만들기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나라 경제는 뒷걸음질치게 된다. 끝없는 반시장 폭주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노트북을 열며

조남호



콘텐츠 절대 강자인 디즈니 플러스의 한

국 상륙이 가져올 여파 때문이다. 통신사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파트너 사로 선정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 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가 디즈니 플러 스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 3사가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에 목 을 매는 것은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경험 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넷플릭스와 가장 먼저 협력한 이 후 2019년 유료방송 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KT도 지난해 넷플릭스와 손 잡아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순증 효과를 거뒀다. 콘텐츠 경쟁력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면에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는 넷플릭스를 견제 하려는 의중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토종 OTT 업계도 분주하기는 매한가

### 병 주고 약 주고

지다. 토종 OTT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 콤이 합작한 '웨이브', CJ ENM의 '티 빙', OTT 스타트업 '왓챠', KT의 '시즌', 카카오의 '카카오TV' 등이 각축전을 벌이 는 가운데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 다. CJ ENM은 최근 JTBC스튜디오의 합류를 발표했다. 양사의 콘텐츠 경쟁력 을 결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OTT 서비스 로 성장시킨다는 포부다. 티빙은 향후 3년 간 40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해 오 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티빙 은 네이버와의 협력도 꾀하고 있다. 2019 년 9월 출범 당시 2023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유료 가입 자 50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세운 웨이브는 최대주주인 SK텔레콤과 아마존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판 아마존 을 꿈꾸는 쿠팡은 월정액 2900원이라는 낮은 요금을 무기로 OTT 시장에 뛰어들 었다. 쿠팡 역시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OTT의 공세에서 살아 남기 위해 토종 OTT 기업들이 적자를 감 수하며 콘텐츠확보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 지만, K콘텐츠의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 출을 꾀하는 정부는 규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하나도 모자 라 부처 간 알력 다툼에 너도나도 규제 카 드를 꺼내 드니 OTT 산업 육성의 진의가 있는지조차 의문시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 년 말 3개월간의 트래픽 양을 바탕으로 트 래픽 점유율에 1%대에 불과한 웨이브를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 다. 이로 인해 웨이브는 전체 트래픽의 4 분의 1을 차지하는 구글과 동일 규제를 받 게 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상향 징수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OTT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나 오지 않았으나 기존 미디어와 OTT가 서 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같게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시장 활 성화 정책 중 하나로 OTT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새다.

글로벌 사업자에 뒤처지는 토종 OTT 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정 토종 OTT 산업과 K콘텐츠 육성 의지가 있다면 사업자의 경영의지를꺾는 과잉 규제는 최소화해야하지 않을까. spdran@

한 컷



코로나와 사투 1년, 우리의 일상도 저 태양처럼…

차가운 공기가 스며 있는 서울 도심에 태양이 따뜻한 빛을 내며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인 지 1년, 코로나 이전의 날들이 그립기만 하다. 밝은 태양이 떠오른 오늘처럼 우리의 일상도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 조현호 기자 hyunho@



